훈화1 성모님 공경의 성서적 근거와 참된 신심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에 대해 바른 신심을 가지고 기도와 활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의 모든 신심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데 성모 마리아 공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탁월한 신앙의 모범으로 다만 존경과 공경을 드리는 것이지 흠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 공경의 참된 의미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루가1,38)」라는 자세로 일생동안 하느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철저히 따른 마리아의 모범을 본받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도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이들을 늘 가까이 하고 만나고 싶어합니다. 모든 인간 중에 또 하늘의 모든 성인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오랜 시간 가까이 계셨고 가장 그분을 많이 닮으신 마리아를 공경하고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줍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통공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즉, 지상과 연옥, 천국의 교회에 속한 이들이 서로 돕고 기도해주며 희생과 공로를 서로를 위해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천국의 성인성녀께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용어사전/작은 예수)" 따라서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기도 즉, '전구'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개신교 신자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데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은 개신교 용어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천국의 성인들은 물론이요 주님을 본받아 인류를 사랑하시는 성모님이야말로 누구보다 지상의 우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실 분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이러한 청을 기뻐하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이토록 큰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돕고자 하시는 성모님께 다가갈 수 있음은 큰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골고타 언덕에서 요한에게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어머니이심을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서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이가 곧 당신의 어머니요,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성모님이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머니이심을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공경하고 본받아야할 어머니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루가복음에서는 성모님을 칭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루가1,28)>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루가 1,45) 라고 하시며 존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성서는 마리아를 진정 참 신앙을 가진 복되고도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돈독한 분을 존경하고 따르고자 합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가 천국에서 현존해 계신 성모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기도를 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바오로딸 "마리아공경의 성서적 근거와 '기적의 메달'의 의미"에서 발췌 편집

훈화2 환희의 신비에서 나타난 성모님 의 삶

환희의 신비 1단 :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 삼종기도에서는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 으로 잉태하셨나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은총이 가득히 받으신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성모송 일부)라고 말함.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성모님은 응답하심.이는 주님께 대한 믿음과 겸손 그리고 순명의 정신을 나타냄.
환희의 신비 2단 :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 보심을 묵상합시다."
\* 엘리사벳 임신 6개월 되던 때에 방문, 3개월가량 머무심.
\* 엘리사벳의 뜻: "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사시는 친척 엘리사벳을 성령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 방문.(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방문축일 기념/ 5.31).당시 즈가리아 대제사장의 아내였던 노인 엘리사벳이 아기(세례자 요한)를 임신중이었음. 마리아를 맞이한 엘리사벳은 지금의 성모송(일부)으로 축복함.
"모든 여자들 가운데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복되십니다." 이에 마리아는 지금 레지오기도문의 까떼나에서 바치는 천주찬가(마니피캇)로 응답하심.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 생각에 기쁨이 넘치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약 3개월간 머물면서 노인인 엘리사벳을 돌보는 봉사를 하심. 여기서 성모님의 봉사정신을 나타냄.
환희의 신비 3단 :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고 평화이신 예수님을 낳으셨으므로 성모님은 사랑을 낳으신 분이심.
환희의 신비 4단 :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심. 성모님은 일생을 봉 헌된 삶으로 사셨음.
환희의 신비 5단 :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찾는 기쁨을 얻으심. 겸손과 순명, 봉사, 사랑과 평화, 봉 헌 된 삶으로 기쁨을 얻으심.

훈화3 사랑은 적극적인 봉사

성모 성월 마지막 날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이다. 오월은 참 좋은 계절 같다. 사월의 봄꽃들이 진 자리마다 푸른 잎이 돋아나, 꽃보다 더 곱고 싱그러운 자태를 뽐낸다. 서둘러 여름 날씨로 바꾸기라도 할 듯이 초목들은 벌써 푸른 그늘을 드리운다. 그래서 일찍이 오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했다. 이 달은 어린이날이 있어 즐겁고, 어버이날이 있어 흐뭇하고, 스승의 날이 있어 감사하다. 또 교회는 ‘성모 성월’을 지내므로 더욱 은총이 충만한 때인 것이다.

그런데 오월은 휴일도 많고, 계절이 계절이니 만큼 잔치와 행사들이 줄을 이어 한 몸으로 쫓아다니기에 버겁고 바쁜 시절이다. 당연히 지출도 늘어나 웬만한 사람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그래서 힘든 달이라고도 말한다. 특히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어머니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숱한 희생과 노고는 우리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삶을 일구어나가는 것들이며, 그것은 인간 삶의 바탕인 ‘사랑’에서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 힘으로 그런 희생과 수고를 치르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성모 성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한다. 성모님의 삶에서 하느님의 사랑에 성실하게 응답한 모습을 찾아본다.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스스로 “주님의 종”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 임신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하고 함께 지내며 ‘적극적으로 봉사’하였다. 이 방문으로 ‘성모의 노래’(Magnificat)라는 아름다운 찬미의 노래가 생겨났으며, 엘리사벳의 뱃속에 든 아기 요한이 성화되었다(루가 1,44).

그렇다면, 성서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축제일로 받아들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을까? 처음 시작한 것은 비잔틴 동방교회로, ‘성모님의 거룩한 옷‘(블라쉐르느)을 안치한 기념성당에서 축일을 지내면서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복음 이야기를 봉독하였다. 축일은,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6월 24일)의 팔일 축제 다음날인 7월 2일에 지냈다. 중세 때 이교들이 창궐하였는데, 14세기말 성모님의 중재로 이것을 중단시키려고 이 축일을 제정하였고 이후로 교회에 널리 전파되어 지내게 되었다.

특히 바젤 공의회에서는 고유 미사 기도문을 도입하여 더욱 장려하였고, 15세기에는 여러 수도회들이 이 축일을 받아들여 고유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리고 17세기에 와서 ‘성모의 엘리사벳 방문 축일’이란 이름으로 완전히 정착하게 된다. 끝으로 새 전례력에서는 이를 성모성월 마지막 날인 5월 31일로 옮겨서 거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축일이 교회 안의 신자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성모님의 엘리사벳 방문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성모님의 깊은 사랑의 태도,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적극적인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모범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날 미사에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독서가 마련되어 있다.

스바니아서(3장)는 ‘시온의 딸’(성모님의 예표)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으며, 로마서(12장)는 성모님이 친척을 찾아가신 이야기를 가리켜 깊은 형제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화답송은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찬미’라고 노래한다.

복음은 당연히 엘리사벳 방문 이야기이다. 문안 인사로 요한이 즐거워하고, 성모님에 대한 칭송이 곧 주님 찬미의 노래로 이어진다. 그리고 성모님은 임신한 엘리사벳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봉사하게 된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날 축일의 미사 고유 기도문을 통해서 이를 잘 일깨워주고 있다.
①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살아야 한다.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것은 성 령의 인도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성모님처럼 주 님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본기도).
②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수고하여야 한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셨다. 그 사랑을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셔서 구원의 제사로 삼으셨다. 곧 우리가 봉헌하는 구원 제사도 모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예물기도)
③ 그리스도를 만나 함께 지내는 생활을 해야 한다. 뱃속에 든 요한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나 기뻐 뛰놀았듯이, 우리도 성체 안에 감추어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받아 모셔야 하는 것이다.(영성체 후 기도)

오월의 마지막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은 성모 성월을 마무리짓는 날이기도 하다. 성모 성월을 지내면서 이 축일이 보여주고 기념하는 성모님의 사랑의 태도를 깊이 묵상해 보자. 성모님의 달, 역시 좋은 계절이다.

나기정 다니엘 / 신부·대구 효성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

훈화4 레지오 마리애의 정신에 대하여

레지오 마리애의 정신은 성모 마리아의 정신이지만 창설자의 정신이기도 하고 영적인 성격을 띤 군인 정신이기도 하다. 교본에서는 레지오의 정신으로서 성모님의 10가지 덕목을 나열하고 있다. 곧 겸손, 순명, 온유, 기도, 고행, 순결, 인내심, 지혜, 사랑, 믿음의 덕목이다(교본, 28면 참조). 이 덕목은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가 지은 [복되신 동정녀께 대한 참된 신심] 108항에서 따온 것이다.
이 10가지 덕목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덕행은 겸손이다. 겸손이란 자신이 하느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겸손은 모든 덕의 기초이며 마리아께서 구세주의 모친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두 번째는 순명이다. 성모님의 순명이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이다. 순명은 겸손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룀에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겸손되이 대답하신 마리아는 순명의 모델이다.

세 번째는 부드러움, 온유이다. 레지오 단원의 활동에는 반드시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레지오 사도직의 특성으로서 성공의 동기가 되는 덕행이다.

네 번째는 기도이다. 기도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성모님의 생애는 기도로 일관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고행이다. 고행은 희생, 보속, 극기와 비슷한 뜻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예수님과 성모님이 걸어가신 고행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 번째는 순결이다. 순결의 덕은 육신의 순결을 의미하지만 심적, 정신적, 영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완전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마음부터 깨끗해야 한다(마태 5,8 참조).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로마 7,21 참조) 마음의 순결은 갈고 닦아야 한다. 단원들은 자주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부터 순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곱 번째는 인내심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대인 관계나 레지오 활동에서 끈기 있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끝까지 참는 사람이 성공하고 구원받기 때문이다(마태 10,22 참조).

여덟 번째는 천상적인 지혜이다. 천상적인 지혜는 하느님을 아는 것에 맛들이는 것이다. 마음속에 간직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모님이야말로 지혜의 모델이다.

아홉 번째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레지오 체계의 핵심이다. 레지오 사도직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는 믿음의 덕이다. 믿음이란 하느님의 말씀이 주는 진리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다. 이는 주님 탄생 예고의 순간에 보여 준 성모님의 태도였다. 마리아는 신약의 첫 번째 신자였다.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

교본은 레지오 정신을 나열한 후에 독일의 아우구스티노회 수사 신부인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 1380-1471년)가 지은 신심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일명 [준주 성범])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성모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믿음에 감화된 레지오는 "어떤 일이든지 모두 해 보려고 하고 할 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핑계는 결코 하지 않는다" (제3권 5장 4절). 레지오 단원들은 영성 생활과 신앙 생활의 토대를 굳건히 해 주는 레지오의 정신 곧 창설자가지닌 마리아의 정신을 한평생 지녀야 한다.
최경용 신부(부산교구 신선 성당 주임)

훈화5 참된 성모 신심으로 사도직을 수행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성모님의 소원은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믿게 하고 쉬고 있는 신자들을 회두시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다. 성모 신심을 실천하는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의 그러한 소원을 들어드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 성모님은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도들의 모후이다.
성모님의 생애는 구세주와 온 인류의 어머니로서 구원 사업을 위한 사도직의 생애였다. 그래서 사도직 활동과 성모 신심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레지오 회합에서 사도직 활동 배당과 활동 보고를 하는 것도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사도직 활동 의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성모님은 주님 탄생 예고의 순간부터 구세주의 어머니와 인류의 어머니 역할을 하기 시작하셨다. 이 역할은 나자렛에서 시작되었지만 차츰 온 세계로 확대되어 지금도 성모님의 모성적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 레지오의 사도직 활동은 이러한 성모님의 역할에 동참하는 것이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성모님과 일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성모님과 일치하려면 성모님의 고귀한 성품과 사명의 온갖 측면을 생활 속에 재현하고 그분의 모성적 역할에 참여해야 한다. 영혼들에 대한 어머니 구실은 성모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된 성모 신심은 영혼들에 대한 봉사와 사도직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머니 역할이 없는 성모님이 있을 수 없듯이 사도직 활동이 없는 레지오 단원은 있을 수 없다.
레지오는 마리아와 사도직이라는 두 원리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단일 원리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원리가 사도직과 신자 생활 전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지오 단원이 사도로서 헌신하려면 말로 봉사할 것이 아니라 사도직 활동으로 봉사해야 한다. 봉사하는 사도직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어느 신경 정신과 의사에게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다. 의사는 그 환자의 환경을 알아보았지만 별로 나쁘지 않았다. 병의 원인은 환자 자신에게 있었다. 의사는 처방전을 주면서 지금부터 보름간 매일 남을 어떻게 기쁘게 해 줄 수 있는지, 남에게 봉사할 만한 일은 없는지 힘써 찾아서 기꺼이 봉사하라고 하였다. 병의 치유를 위해 처방전에 적힌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봉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환자는 의사의 지시대로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힘써 찾아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우울증이 치료되었단다. 그 환자는 사랑을 하지 못해 우울증에 걸렸던 것이다. 이처럼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도 생기고 정신 건강도 좋아진다.
레지오 단원이 사도가 되는 단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봉사 능력을 발휘하여 사도직 활동에 착수하는 것이다. 일단 사도직 활동을 시작하면 성모님의 어머니 역할을 도와 드리게 된다. 성모님은 어머니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우리가 도와주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참된 성모 신심으로써 사도직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성모님께서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

훈화6 레지오 단원과 그리스도 신비체(교본 제9장 1-3항：84-95면)

성모님은 그리스도 신비체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신비체는 구세주를 낳아 주신 성모님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신비체에서 예수님께서 머리이시라면 성모님은 어느 지체에 해당되실까? 성모님은 심장에 해당되신다. 심장은 온 몸에 피를 공급하고 순환시켜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 만약 심장이 몸 전체에 피를 공급해 주지 않고 마비된다면 머리도 그 기능을 상실하고 생명마저 잃게 된다. 심장은 고동이 멎을 때까지 끊임없이 활동하므로 성모님의 생동적이고 활동적인 역할을 잘 부각시킨다. 그뿐 아니라 심장은 내적 생활의 중심인 마음과 사랑도 상징한다.

성모님은 이처럼 신비체의 심장 부분에 해당되시지만 그 역할에서는 신비체의 어머니 구실을 하신다. 신비체의 어머니는 신비체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신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신비체의 어머니로서 모든 지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신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는 그리스도 지체들의 어머니이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사랑으로써 신자들이 교회 안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태어나도록 협력하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리아는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가장 독특한 지체이다."(교회헌장, 53항)라고 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이다.

몸은 각 세포의 협력 없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눈이 손더러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1고린 12,21). 몸의 각 지체는 서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은총 역시 지체에서 지체로 전달된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호수 전체가 파장을 일으키듯이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이것을 이른바 구원의 연대성이라 부른다. 따라서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 이처럼 레지오 단원 한 사람의 잘잘못에 따라 천주교가 칭찬받거나 비난받게 된다.

신비체의 심장이시요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도와줄 협력자들을 찾고 계신다. 레지오 단원이야말로 신비체의 지체들을 보살피시는 성모님의 쓸모 있는 도구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과 함께 자신과 타인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전혀 없는 어느 자매가 있었다. 그녀는 평생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아가는 불우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항상 밝고 맑은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저 만나는 이들에게 미소를 선물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녀는 비록 사지가 없는 몸이었지만 신비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신비체의 쓸모 있는 지체가 되었던 것이다.

레지오는 초창기부터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 방문 활동을 실시해 왔다. 레지오 단원들은 활동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과 자주 만나게 되므로 고통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현대인은 고통, 십자가, 희생, 보속 등의 단어를 입에 담기 꺼려하고 듣기조차 거북해하는 것 같다. 누구나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고통이 없어지거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해(苦海)이므로 인생에 고통은 있게 마련이다. 고통은 피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보탬이 되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상징은 십자가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부활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고통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기쁨의 부활을 누릴 수 없다. 어머니의 산고 없는 자녀 없고 도공의 진땀 없는 술잔 없듯이 고통 없는 참된 기쁨이 없다. 인생에는 반드시 시련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결국 십자가의 원리는 하느님 사랑의 법칙이다. 십자가의 고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은 아파봐야 건강의 고마움을 알고, 시련을 겪어봐야 인생의 참 맛을 알게 된다. 어떤 냉담 교우가 있었다. 건강한 신체에 학식도 있고 재산도 많아 남부러울 게 없었다 그에게는 하느님도 필요 없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다.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다. 교통사고의 아찔한 순간을 생각하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기 목숨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느님 것임을 깨달았다. 죽으면 건강도, 학식도, 재산도 필요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세속적인 것에 신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 굳게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였다. 교통사고가 그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에게는 고통이 은총이었다. 아픔을 겪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니까.

하느님은 고통 속에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숨겨두고 계신다. 하느님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주님은 사랑하는 이를 견책하시고 아들로 여기는 이에게 매를 드시는 분이시다(히브 12,6 참조). 따라서 고통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은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는 다리이며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약이다. 고통을 통해 성공이 있듯이 고통을 통해 인간이 성숙한다.

성모님은 환희와 영광의 어머니인 동시에 고통과 통고의 어머니이시다. 성모님은 임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심장이 예리한 칼에 찔리듯 극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셨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 가슴이 무덤이 되듯이 성모님 가슴도 예수님의 무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 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라고 기도한다.

고통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 사업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영광도 차지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에 현존하신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십자가는 더하기표(＋)이지 결코 빼기표(－)가 아니다. 고통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불행도 되고 은총도 된다.
레지오 단원들은 고통의 여러 의미를 깨달아 고통받는 신비체의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생활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최경용(부산교구 신선 천주교회 주임 신부)

훈화7 레지오 사도직 (교본 제10장 1-7항：96-107면)

레지오 마리애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이고 레지오 사도직은 바로 평신도 사도직이다. 레지오는 단원들에게 교회 안팎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독려한다.

평신도 사도직은 교황 비오 10세(1903-1914년 재위)와 비오 11세(1922-1939년 재위)가 강조한 '가톨릭 운동'의 영향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실을 맺었다. 이 공의회에서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이 반포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도부터 평신도 주일도 제정되었다.

평신도 사도직의 존엄성과 필수성을 알아보려면 먼저 평신도와 사도직을 따로 분리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평신도'란 '하느님 백성'에서 유래하며 성직자와 수도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곧 “세례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느님 백성 중에 들며 그들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여 교회와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 전체 사명을 각기 분수대로 수행하는 신도들을 말한다"(교회헌장, 31항).

사도직이란 '교회 창립 목적인 그리스도 왕국 확장, 인류 구원, 세계 성화를 위한 신비체의 모든 활동'이다(평신도교령, 2항 참조). 그러므로 평신도 사도직이란 성직자, 수도자가 아닌 신자가 주님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도들의 사명을 나름대로 수행하는 직무이다.

평신도 사도직이 존엄한 이유는 평신도 사도직이 교회의 구원 사명 자체의 한 부분이며 주께서 친히 이 사도직에 부르시기 때문이다(교회헌장, 33항 참조). “평신도교령"에서는 평신도 사도직의 존엄성과 필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평신도의 사도직 수행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나온다. 평신도는 세례성사로써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가 되고 견진성사로써 성령의 힘을 받아 굳건해지므로 그들에게 사도직 사명을 내리시는 분은 주님 자신이시다. 평신도가 거룩한 백성, 왕의 사제로 축성됨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영적 제물로 봉헌하고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평신도교령, 3항). “평신도 사도직은 그리스도 신자로 불리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결코 없어질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 현대는 초대 교회 못지않은 평신도들의 열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의 정세는 보다 활발하고 보다 광범한 평신도 활동을 요청한다. 날로 격증하는 인구, 과학과 기술의 발달, 보다 긴밀해지는 인간 관계 등은 평신도 사도직의 무대를 무한히 확대하였고 그 활동 분야의 대부분은 평신도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평신도교령, 1항).

평신도의 고유한 특징은 세속적인 성격에 있다. 그들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복음 정신으로 사도직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자신의 성화와 세속의 복음화에 이바지하도록 주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단원들은 평신도 사도직의 존엄성과 필수성, 평신도의 고유한 특징을 알아 교회와 세속 안에서 사도직을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겠다.

훈화8 레지오와 평신도 사도직(교본 98-100면)

레지오 마리애가 창설된 당시에는 조직적 사도직 단체로서 '가톨릭 운동'(Catholic Action)이 있긴 했지만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별로 없었다. 레지오 마리애는 교회의 사도직 목적을 위해 평신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성직계와 협력해야 한다는 '가톨릭 운동'의 조건을 갖춘 평신도 사도직 단체이다. 레지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기 40년 전부터 이미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소명 의식을 일깨운 단체이다.

모든 평신도는 사도직에 부름을 받았고 반드시 사도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희생과 부담이 따르는 활동을 꺼려한다. 세례 받은 이는 누구나 예외 없이 마귀를 끊어 버리고 하느님만을 믿고 살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혼자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열심이던 마음이 식어지고 세례 받기 전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사도직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 악의 유혹과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없다(사목헌장, 13항 참조). 혼자서 신앙 생활을 꾸준히 하기도 힘든데, 개인적으로 사도직을 수행하기는 더욱 힘들다. 개인이 사도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사도직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수님은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태 18,20)라고 말씀하셨다.

레지오 마리애는 조직적인 사도직 단체이므로 레지오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게 되고 신앙 생활에 안전 장치가 된다. 아프리카와 중국의 교황 사절을 역임한 안토니오 리베리(Antonio Riberi) 추기경은 레지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격찬을 하였다. “레지오 마리애는 참으로 매력적인 형태의 사도직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레지오는 활기에 찬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며, 교황 비오 11세가 정하신 방법, 곧 하느님의 동정 성모께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레지오는 단원의 질적인 면을 중시하여 이를 밑바탕으로 삼으며, 단원 수를 늘리는 데에도 요긴하게 이 방법을 활용한다. 레지오 마리애는 많은 기도와 자기 희생, 정밀한 조직 체계, 그리고 사제와의 온전한 협력을 통하여 튼튼해진다. 레지오 마리애야말로 현시대의 하나의 기적이다."

레지오 마리애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심 운동이다. 레지오는 50년에 걸쳐 한국 가톨릭 교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견인차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것은 레지오 단원들이 평신도 사도직 수행에 솔선수범하기 때문이다. 레지오 단원은 성모께의 봉헌과 성령께의 선서로써 무장한 영적 군인이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레지오 단원은 평생 동안 조직적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에 붙어 있어야 하며 결코 레지오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낙오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평신도의 세 가지 직분인 사제직, 예언직, 왕직 중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지만 특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직에 중점을 둔다. 레지오는 선교 사도직 활동으로써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단원들은 하느님께 선택된 도구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

훈화9 성모님 공경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를 봉헌하자

5월은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는 성모님의 달로 레지오에 있어서는 뜻깊은 달이기도 하다. 화창한 봄날에 성모님 공경에 최선을 다하고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하자. 묵주기도도 더열심히 하며 형제를 위해 묵묵히 땀흘려 봉사하는 레지오 단원이 되자. 간부들은 이일에 더 힘써야 한다. 성모님은 생활로써 모범을 보여 주신 분이다. 정성이 없는 활동은 레지오 활동이 아니며, 보잘 것 없는 활동은 위선이다. 성모님께 정성을 다하자.'몬시뇰' 성인은 '레지오는 평신도 수도단체이다'라고 하셨다. 평신도 수도단체에 속한 우리들은 나를 모두 바쳐야 한다. 세속생활도 레지오 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레지오 단원,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한다. 땅속에 묻힌 보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매어야 보배이다. 하느님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협조하고 희생하여야 한다. 레지오 대열에 참여한 레지오 단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세속에 치우침이 없이 하느님 흠숭에 더 열심히 열렬한 활동을 해야 한다. 적극적이고 불같은 정신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 레지오는 선배들의 본보기를 통해 활동을 하며 "내가 하니까 남들도 같이 한다."는 도제제도 정신으로 솔선수범 하는 간부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입단원들은 예비단원기간동안 교육과 공부 그리고 레지오 정신을 심어주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성월을 잘 지내도록 하자.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양철화 단장 훈화 요약편집 (2001.5.6)

"성모님과 함께 즐겁게 살고,
성모님과 함께 모든 시련을 견디어 내며,
성모님과 함께 일하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성모님과 함께 여흥을 하고, 성모님과 함께 쉬어라.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라.
그리하여 그대의 팔에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나자렛에서 살 집을 마련하여라.
성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십자가 곁에 머무르며
그대 자신을 예수와 함께 묻으라.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오르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살고 죽으라"
- 토마스 아 캠피스 -

훈화10 고통은 언제나 또 다른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체험합니다. 고통은 몹시 괴로운 것이지만 일생을 살아가는 데 소중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의 계획에도 고통은 큰 몫을 합니다. 레지오 단원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하느님의 진리를 용감히 전파하면서 고통받는 형제들을 찾아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야합니다. 고통을 받을 때 찾아 준 친구를 잊을 수 없고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면 이웃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며 위로와 격려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행복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모님은 즐거움과 슬픔의 어머니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두 성심은 동일체를 이룰 만큼 일치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 두 성심은 신비체안에서 신비체를 위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고통이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고통은 은총의 표시요 생명의 고통으로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은총의 시기로 간주해야 합니다.

고통은 언제나 또 다른 은총입니다. 고통은 병을 고쳐 주거나 힘을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통은 결코 죄에 대한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여기에 관하여 성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인류의 고통은 형벌이 아님을 이해하라. 왜냐하면 고통은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우리 주님의 수난은 일반 신자나 성인들의 몸 안으로 넘어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하게 닮도록 만드는 특전을 베풉니다. 이런 고통의 교환과 융합은 모든 고행과 보속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레지오마리애 길잡이」에서 발췌요약 (광주 세나뚜스 단장 김영대 루도비꼬)

훈화11 성모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할 의무에 대하여

겸손이란 자신의 처지를 알아 스스로 높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면서 남을 존중하고 모든 것이 하느님 덕분이라고 여기는 자세이다. 곧 하느님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며 자신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레지오 조직에서는 겸손이 독특한 역할을 한다. 단원들은 대인 접촉 활동을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활동 대상자들에게 부드럽고 소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겸손이야말로 효과 있는 활동의 요람이며 도구이기 때문이다. 교만은 악의 뿌리이다. 천사도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던 것이다. 레지오 단원에게 악마가 접근하는 방법은 먼저 단원의 귀부터 즐겁게 만든다. 곧 사도직 활동을 할 때 찬사와 칭찬을 받게 한다. 그리고 칭찬과 찬사에 집착하도록 단원을 유인해서 서서히 교만해지도록 한다. 일단 단원이 교만하게 되면 악마는 승리의 미소를 짓는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떨어지고 낮추면 안전하다. 언젠가 미국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신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귀중한 골동품을 남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진열장 위에 두고 신통치 않은 물건은 진열장 맨 아래에 두었단다. 지진이 나자 위에 있던 골동품은 모조리 떨어져 박살이 났으나 맨 아래 있던 물건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겸손은 모든 덕의 바탕이다. 주님의 강생도 겸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는 교만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과 성모님은 겸손 때문에 새 아담, 새 하와가 되어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셨다. 성자께서 하필이면 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겠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나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믿음과 겸손 때문이었다. "주님의 종이오니"라고 대답한 마리아의 겸손으로써 강생이 이루어졌고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라는 마니피캇의 예언도 실현되었다.

몽포르의 성인이 말한 대로 "성모 마리아는 지극한 겸손으로 항상 세상 사람들 몰래 숨어 살기를 원하셨고 오직 하느님만 자기를 알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셨다"(참된 신심, 2항).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은 활동을 할 때 겸손의 표본인 성모님을 닮아야 한다. 레지오 사도직은 성모님을 통하여 움직인다. 성모님이 지닌 겸손의 덕을 갖추지 않고서는 성모님을 닮았다고 할 수 없다. 겸손은 모든 레지오 활동에서 성모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활동이 뿌리라면 그 뿌리가 내린 흙이 겸손이다. 흙은 뿌리를 부드럽게 감싸 주면서 생명을 성장시킨다. 겸손하지 못한 레지오 단원은 흙에서 뽑혀진 뿌리처럼 그가 하는 사도직 활동도 시들어 말라 버릴 것이다. 겸손한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물리치는 싸움을 치러야 한다. 늘 '내 탓'으로 돌리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 중심으로 삶의 초점을 맞출 때 사도직 활동이 성공할 것이다. 다행히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고 겸손되이 봉사하는 단원들이 많다. 그들은 성모님을 본받아 자신이 하느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알고 보잘것없는 일도 기꺼이 떠맡으며 남의 멸시와 박해도 견디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이처럼 레지오 단원들은 활동의 뿌리이며 수단인 성모님의 겸손을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
최경용 신부(부산교구 신선 성당 주임)

훈화12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에페 6,11)

레지오 마리애는 이웃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영적 군대다. 그런데 봉사를 잘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마의 군대가 존재한다(마르 5,9 참조). 이른바 호사다마(好事多魔)이다. 레지오의 마침 기도문에 ''''한평생 싸움이 끝난 다음''''이란 말이 있듯이 레지오 단원 생활은 악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군대 생활이다.

사도 바오로는 에페소 교회 신자들에게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에페 6,11)라고 호소하면서 그 당시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는 영적인 무기로서 진리, 정의, 평화의 복음, 믿음, 하느님의 말씀, 기도이다(에페 6,14-18 참조). 특히 레지오 마리애에서는 악마의 상징인 뱀의 머리를 짓밟고 계신 성모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있으므로 성모님이 좋아하는 하느님의 무기인 묵주 기도를 활용해야 한다. 소년 다윗이 작은 돌팔매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레지오 단원들도 영적 무기인 묵주로 악마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다.

클레멘스 성인이 로마 군단을 교회가 본받아야 할 표본으로 보았듯이 로마 군대는 지상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하고 용맹한 군대였다. 그러나 그 군대는 어디까지나 로마 제국의 영토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세속적인 군대였지 봉사하는 군대는 아니었다. 레지오 단원들은 로마 군대가 지녔던 자질보다 더 훌륭한 자질을 지녀야 한다.

특히 봉사할 때는 특출한 군인 정신을 지녀야 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아무리 어려운 봉사라도 거뜬히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
오창렬신부 훈화내용중 발췌

훈화13 성모님의 군대라는 이름의 꽃

레지오 마리애(Legio Mariae)는 라틴 어로 "마리아의 군단"이라는 뜻이다. 레지오가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창설자인 프랭크 더프에 의해서이다. 레지오 마리애가 정식 명칭이 된 것은 1925년 11월 15일이다. 프랭크 더프는 레지오 마리애의 명칭 도입에 대해 그가 죽기 1년 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명칭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어느 날 자정이 넘어 침실로 가면서 내 서재에 걸려 있는 아름다운 성모님 초상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내 뇌리에 레지오 마리애라는 이름이 스쳤다."라고. 레지오 마리애(Legio Mariae)라는 라틴 말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레지오(Legio)는 군단이라는 뜻으로 레지오의 조직 형태를 군대의 체계로 조직화하였음을 말한다. 이것은 레지오의 제도와 기능, 그리고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 방법론을 의미한다.
둘째, 마리애 (Mariae)는 라틴 말인 마리아(Maria)의 소유격으로 "마리아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레지오 마리애의 주인은 마리아이시다는 것이다. 이것은 레지오에 속한 모든 이들이 또한 마리아님에게 속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레지오 마리애는 외형적인 면에서 군대의 모습으로,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는 성모님의 영성을 바탕으로 성모님의 소유가 된 단체임을 알 수 있다.

교본에 의하면, "레지오 단원들은 충성과 덕행과 용기로써 위대한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님께 자신을 맡기고 싶어한다. 바로 이 점이 레지오 마리애가 군대 형태로 조직된 이유이다. 이 군대의 형태는 본디 로마 군단을 본뜬 것이며, 명칭도 거기서 따 왔다. 그렇지만 레지오 마리애의 조직과 무기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레지오 마리애의 의미는 레지오 마리애의 대표적 상징물인 레지오의 벡실리움(Vexillum Legionis)〔벡실리움(Vexillum)이란 로마 군대 중 기병대의 문장으로서 최고 사령관의 전투 개시 신호의 붉은 기를 말한다. 레지오를 상징하는 단기인 벡실리움은 원래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로마 군대의 벡실리움에는 독수리와 그 아래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데, 레지오는 독수리 대신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황제의 초상 대신에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마리아님의 초상으로 대신하였다.

로마를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를 보면 로마 군대의 벡실리움을 볼 수 있다. 이 벡실리움은 바로 로마 군대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잘 나타낸 것이다. 로마 병사들은 진격하기에 앞서 "로마의 영광! 황제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외치며 진군하였다고 한다. 높게 쳐들린 벡실리움을 바라보면서 벡실리움에 새겨진 그들의 국가인 로마를 위해 그들은 그렇게 헌신하였던 것이다. 그 순간 자신이 왜 목숨을 건 이 전투에 참여하는지, 왜 가장 고결하고 소중한 자신의 생명마저 바쳐야 되는지를 벡실리움을 바라보며 마음에 새겼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로마인으로서 하나 된 일치의 정신과 투철한 소속감을 벡실리움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은 레지오의 벡실리움 안에서 성모님을 통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구원의 일꾼으로서 하나가 됨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들을 담아, 교본은 레지오 마리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레지오 마리애는 가톨릭 교회가 공인한 단체로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의 싸움에 참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대이다. 이 군대를 총지휘하시는 성모님은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시며'' 사탄과 그 무리들에게는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분''이시다."〔교본, 1쪽〕.
오창렬신부 훈화내용중 발췌

훈화14 성모님을 알고 성모님을 이 세상에 모셔 오는 일(교본 43-45면)

성모 신심을 받아들이는 데에 대개 세 가지 유형의 신자들이 있다. 첫째는 성모 신심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신자들이고, 둘째는 성모님을 공경하지만 성모 신심이 약한 신자들이고, 셋째는 성모 신심 단체에 가입하여 성모 신심을 실천하는 신자들이다. 첫째와 둘째 유형의 신자들은 성모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모 신심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영국의 훼이버(F. W. Faber) 신부는 프랑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가 지은 [복되신 동정녀께 대한 참된 신심]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 책의 서문에서 ''마리아를 알기만 한다면!''(If Mary were but known!)이란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사실 이 성인의 저서 [참된 신심]에는 사목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 성인은 사제들이 신자들에게 성모님의 모성적 역할을 알려 주어 신앙 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목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프랭크 더프는 성모 마리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영혼들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훼이버 신부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사목과 선교에 애를 먹고 있는 사제들을 위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성모 마리아를 알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냉대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앙도 빛나고 영성체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성모 마리아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더 닮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모 신심은 우리에게 크나큰 변화와 은총을 가져다주고 영혼들의 구원과 그리스도 왕국 건설에 놀라운 효력을 나타낸다는 내용이다.

성모 신심이 이처럼 놀라운 변화와 효력을 가져온다면 성모님을 이 세상에 모셔 오는 일을 할 사도적 단체가 필요하다. 그 단체가 바로 레지오 마리애이다. 레지오는 성모님을 이 세상에 모셔 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성모님은 당신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레지오의 협력에 의존하고 계신다. 레지오의 존재 자체와 레지오 단원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성모님을 알리고 성모님을 이 세상에 모셔 오는 것이다.

시골의 어느 외딴 공소에 레지오 지단을 하나 설립하였는데 10여 명의 단원 대부분이 연로하였으며 문맹자들도 있었다. 저녁 회합 시간에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그들은 꾸벅꾸벅 졸았다. 훈화 시간에 마침 본당에서 방문한 수녀가 그런 태도로 주회를 하려면 차라리 레지오가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 중 한 단원이 대답하기를, 레지오 지단이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되었지만 레지오 덕분에 냉담자가 많이 교회로 돌아왔다고 하더란다. 비록 그 단원들은 무식하고 고단해서 제대로 주회를 치르지 못해도 레지오를 통해 성모님을 모심으로써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프랭크 더프는 레지오가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할 많은 것들 중에서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모습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데에 레지오 마리애를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사람들에게 성모님을 알리고 성모님을 모셔다 드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들, 외롭고 가난한 이들, 병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성모님을 모셔다 드리는 단원들이 되어야겠다.

훈화15 강력한 질서 체계와 이상적인 단원(교본 109-111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일정한 법칙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다. 천체에는 물리적 법칙이 있고 동물에는 생리적 법칙이 있다.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를 물리적 법칙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지구는 파멸될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혈액 순환의 법칙을 바꾸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철로 위를 달리도록 되어 있는 기차가 철로를 벗어난다면 전복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모든 법칙은 지키기 귀찮고 부담이 되더라도 교통 신호등처럼 질서를 이루게 하고 생명을 보호해 준다.

무릇 단체에도 규칙과 회칙이 있기 마련이다. 레지오 마리애도 마찬가지이다. 레지오 마리애는 이름 그대로 마리아의 군대이다. 군대에도 기강을 확립하는 군법이 있다. 군인은 강력한 질서 체계를 확립하는 규칙과 규율, 군법을 원리 원칙대로 지켜야 한다. 레지오 마리애는 고대 로마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고 강력한 질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레지오에 입단하려는 후보자나 레지오를 잘 모르는 신자들은 레지오가 군대라는 것과 강력한 질서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레지오를 원리 원칙만 따지는 융통성 없는 단체로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많은 레지오 지단이 형식적인 주회를 하고 규칙을 중요시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운영하는 것 같다. 이점에 대해 교본 본문은 "레지오는 규칙의 힘을 바탕으로 강력한 질서 체계를 마련하여 단원들이 모든 세부 규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는 정신을 지니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다른 단체에서 조직원들에게 단순히 규칙을 지키라고 권장하거나 알아둘 사항 정도로만 여기는 것과는 아주 다른 레지오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지오는 단원들이 크리스찬의 완덕을 꾸준하고 뚜렷하게 쌓아 나가도록 바탕을 마련해 준다."라고 단호히 말한다.

한편 교본 본문의 말대로 "레지오는 '단원이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Perfection of membership)를 평가할 때 조직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레지오는 단원이 수행한 활동의 결과가 만족스럽다거나 혹은 밖으로 드러나는 성공의 정도가 크다거나 하는 것으로 그 단원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쁘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와 단장은 이러한 단원 평가 기준에 대하여 모든 단원들이 항상 명심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조직에 대한 충성은 능력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이상이다."

레지오의 특별 수호 성인인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는 병원에서 불치병 환자들을 간병해 줄 여성들을 선발할 때 그 기준을 충성과 순명에 두었다. 간병할 여성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느님의 섭리에 의탁한다면 총명과 우둔이 문제되지 않고, 규칙을 충실히 지킨다면 부유와 가난이 문제되지 않으며,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법을 배운다면 유능과 무능이 문제되지 않았다.

이 성인은 또한 구약성서에 나오는 에사오와 야곱을 예로 들면서 성모 마리아의 자녀들이 야곱처럼 순명과 충성으로써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단원들의 레지오 조직 체계에 대한 충성, 주어진 일을 헌신적으로 이행하는 초자연적 정신과 성모님께 대한 열성의 정도에 따라 이상적인 단원, 단원 자격의 완벽성을 평가한다.
최경용(부산교구 신선 천주교회 주임 신부)

훈화16 묵주기도 성월에 대하여

교회는 일정한 달을 선정하여 특별한 신심을 고백하거나 공경한다. 사회에서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등이 있듯이 교회에서도 성 요셉 성월(3월), 성모 성월(5월), 예수성심 성월(6월), 순교자 성월(9월), 묵주기도 성월(10월), 위령성월(11월) 등이 있다.

묵주기도란 말은 라틴어 Rose(장미)에서 유래하는 장미꽃다발(Rosarium)에 기원한다. 우리말로는 통상 묵주 혹은 매괴(매괴는 중국에서 나오는 붉은 美石이라고 함)라고 한다.

묵주기도의 기원은 두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교회의 오랜 전설에서 기원하는 것으로서 13세기 경에 성모님께서 도미니꼬 성인에게 나타나셔서 전해 주신 것이 묵주기도이며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알비파'라고 하는 이단을 물리치기 위한 무기로 주셨다는 것이다. 그 후 알비파라는 이단은 사라지게 되었고 묵주기도는 15세기 경에 로사리오회라는 수도단체가 생길 정도로 널리 퍼져 나갔다. 둘째, 초대 교회때부터 신자들이 바쳤고 후에 성직자, 수도자들이 바치는 성무일도에서 로사리오가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성무일도는 주로 시편으로 짜여진 기도인데 초대교회에 150편이나 되는 시편 기도를 빠짐없이 바치기 위해 구슬을 엮어 묵주를 만들어 도구로 이용하여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바치게 되다가 중세 성모신심의 부흥으로 성모송을 바치는 묵주기도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묵주의 옛 형태가 150개의 구슬로 꿰메졌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150번의 성모송을 열번씩 나누어 각각 5단으로 짜여진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게 된 것이다.

중세 이후 도미니꼬 수도회의 영향을 받아 로사리오 기도를 전파하던 로사리오회의 노력에 의해 이 기도는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유럽과 그리스도교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방어막 역할을 했던 오스트리아의 요한이 쟁취한 레판토 해전의 승리가 바로 이 로사리오 기도 덕분이라는 믿음이 생겨났다

교황 비오 5세는 1571년에 이를 기념하여 승리의 성모 축일을 제정하였다. 이후 1573년 이 축일이 로사리오의 성모축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10월 첫째 주일에 축일을 지내오다가 1716년 클레멘스 11세 교황은 또다시 터키를 상대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며 로사리오 성모 축일을 레판토 해전이 일어난 날인 10월 7일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거쳐 '로사리오의 성모 축일'이 들어 있는 10월을 로사리오 성월로 정하였으며 오늘날 '묵주기도 성월'로 지낸다.

<'가톨릭 대사전' 참조>

훈화17 레지오 단원의 활동의무에 대하여

지난 9월 소년 레지오 운동회에 봉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평의원님들에게 감사 드린다. 오늘(10.7)은 교구설정 38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여 교구행사로 오전 11시 정자동 주교좌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였다

레지오 단원의 의무중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교본에 레지오 단원은 주간 2시간이상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각자 맡겨진 본분들이 다 있다. 학생은 공부를, 부모는 가정경제와 가사꾸리기 자녀 지도를, 군인은 병역의 의무 등 주어진 일들이 있다.
오늘은 군인주일이기도 하다. 군인들도 입대하면 각자 소임이 있고, 보직에 따라 이등병, 일등병, 상병, 병장 나름대로 할 일이 있으며, 군기에 따라 활동을 한다. 군에서는 군입대후 100일이 지나야 휴가를 주는데 이는 예전에 태어나서 100일 이내에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생존의 시점인 100일이 지나야 살았다고 보고 호적에 올리거나 백일 잔치를 한 것에서 유래한 듯 하다. 군인들은 복무기간중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한다. 제7일 안식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군복무를 거부하고, 국기에 대하여 경례도 안하기도 하여 군복무대신 군 교도소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레지오 단원들이 배당 받은 활동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단원이 아니며, 주어진 활동을 하지 않음은 레지오 단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레지오 규율에 따라 활동을 하여야 한다.

군종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면 사병 몇백 명이 참례하기도 하는데 미사집전을 하다보면 많은 사병들이 성가도 부르지 않고, 졸기도 하지만 열심히 미사에 참례하는 사병들도 있다. 그리고 동전 몇 개의 소액이지만 미사헌금을 하고 있으며 같이 미사를 드리더라도 소액헌금과 적극적인 미사참례를 하는 사병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배회하는 사병들도 있다.

우리는 레지오 단원들에게 주어진 활동 의무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기쁘게 활동하도록 단원들이 움직여야 한다.
주어진 활동들을 기쁜 마음으로 활동하는지? 능동적으로 활동하는지?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활동인지? 생각해 보면서, 기쁘게 충실히 활동을 수행하는 단원들과 간부들이 되기를 바란다.

윤민서 미카엘(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 지도신부)훈화편집

훈화18 위령 성월에 대하여

위령 성월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다. 한국 교회에서는 위령의 날(11월 2일)과 연관시켜 11월을 위령 성월로 정해 놓았다. 이 달에는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게 된다. 한편 11월 2일 위령의 날에는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들의 영혼을 기억하게 되는데, 998년 일년에 한번씩 위령의 날을 지키도록 명령한 클뤼니 수도원의 오딜로(Odilo)의 영향으로 보편화되었다.

위령 성월의 기본 바탕은 하느님 백성간의 사랑과 유대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랑의 유대는 예수님께서 첫째가는 계명으로 또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은 비단 이웃사랑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공을 초월하여 이미 죽은 이들과의 사랑의 유대로도 뻗어나간다. 그러므로 위령 성월의 근본정신은 사랑의 정신이요 하느님 백성 전체를 향한 한없는 사랑의 표현이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정신의 표현이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공동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 사랑의 행위와 희생을 쌓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이것이 위령 성월을 맞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여야 한다. 나 혼자만의 구원은 있을 수 없다. 하느님께서는 처음부터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닌 백성의 구원, 즉 공동체의 구원을 원하셨다. 또 이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마저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무참히 죽는 고통마저 감수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랑의 사도이어야 한다.

'성직자 홈페이지 가톨릭자료실'에서 발췌편집
(http://fr.catholic.or.kr)

※ 매년 11월 위령 성월에 모든 쁘레시디움은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을 위해 미사 한 대를 봉헌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세상을 떠난 단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원 구분이나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행동단원과 모든 협조단원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다. (교본161쪽)

연옥 영혼 위령(慰靈)의 방법 ('교부들의 신앙'에서 발췌)
미사봉헌(위령미사) 미사참례 및 영성체 성체조배 연도(위령기도)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외 희생과 자선 대사 (전대사, 한 대사)

"우리가 애덕으로 연옥 영혼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모두 은총으로 변하여 우리는 후세에 그 백배의 갚음을 받습니다." (성암브로시오)

훈화19 으뜸가는 의무, 쁘레시디움 주회합에 대하여

레지오의 영성은 개인 성화를 추구하는 개인 영성과 소공동체를 이루어 다함께 하느님과 이웃에게 나아가는 집단 영성(공동 영성)이 결합된 영성이다. 집단 영성이 이루어지려면 조직원들이 다함께 자주 어울려야 하고 반드시 회합에 참석해야 한다. 군대에서 군인이 점호에 불참할 수 없듯이 마리아의 군대에 속한 단원들이 회합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레지오 단원의 으뜸가는 의무는 다름아닌 회합 참석이다.

그런데 요즈음 군기(軍紀)가 느슨해진 탓인지 주회합이나 평의회에 결석이 잦아 출석률이 저조해지는 경향이 있다. 습관적으로 지각하거나 아무 말 없이 결석을 하고도 태연하다. 교본 본문에 따르면 "레지오는 조직 안에서 단원이 지켜야 할 으뜸가는 의무가 회합에 참석하는 것임을 가장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레지오를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회합이다. 회합을 통한 결속이 끊기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면 단원들은 떨어져 나가고 활동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단원들이 회합을 소중하게 여길 때 레지오 조직의 힘은 굳세어진다."

어느 여성 단원이 집안 사정으로 회합에 한두 번 빠지다 보니 출석에 소홀하여 결국 탈단하게 되었다. 그런데 탈단 후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건강조차 나빠졌다. 본당 수녀님이 그 자매에게 재입단하길 권유하면서 회합에 참석할 때마다 성모님은 물론 예수님과 성령께서도 함께 참석하시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해 주었다. 그 자매는 재입단하여 레지오의 으뜸가는 의무를 잘 지켰다. 그랬더니 영육의 건강도 회복하였고 후에 단장도 맡게 되었다고 한다.

레지오 단원의 첫 번째 의무는 상훈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회합에 정각에 규칙적으로 출석하는 것이다. 교본 본문의 말대로 "주회합 참석에 소홀한 단원들의 활동은 마치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 이 으뜸가는 의무를 게을리 하게 되면 어떠한 활동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곧 레지오 대열에서 탈락하고 만다는 사실은 이치를 보아도 그렇고 이미 경험상으로도 잘 드러나 있다."

쁘레시디움 주회합이란 레지오의 기초 단위체가 매주 정기적으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회합을 말한다. 이 규칙은 창립 때부터 시행해 온 레지오의 기본 요소이다. 레지오는 쁘레시디움 주회합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쁘레시디움 주회합은 단원 양성의 길잡이이다. 교본 본문에 따르면 "주회합은 레지오의 심장이다. 주회합은 레지오를 밝히는 전력과 동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이며, 레지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보화의 곳간이다. 주회합은 공동체의 수련 도장이며 주회합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활동에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또한 각 단원은 쁘레시디움 주회합을 통하여 절제된 신앙 정신이 몸에 배게 되어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개인 성화에 힘쓴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취향을 억누르고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쁘레시디움 주회합을 중요시하여 비록 매주 모임이 부담되더라도 주회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주일 미사 참례는 소홀히 하면서 주회합 참석만을 중요시하는 잘못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교본 111-114면) 최경용 신부

훈화 20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우리는 여행 목적지에 따라 버스, 기차, 배, 비행기, 우주선 등 탈것과 길이 있다. 하느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타야 할 것인가 ?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의 도움과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때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다.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한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가지가 잘리어져 떨어져 나가면 너희는 살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연어고기도 때가되면 자기가 태어난 개울을 찾아가 알을 낳고 죽는다고 했다. 우리도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눈먼 사람이나 다름없다. 나뭇잎은 햇빛을 받아 푸른색, 노란색, 빨간색 등으로 보이나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나뭇잎은 색깔이 없다. 빛으로 해서 모양과 색깔을 볼 수 있다. 빛은 무엇인가 ?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 내 욕심, 내고집과 세속적인 것만을 찾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다. 나를 하느님과 예수님께 온전히 봉헌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빛으로 아름다운 삶의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해, 무엇 때문에 사는가 ? 우리는 분명히 이 길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길은 성서나 교리 등을 통해서 알 수 가 있다. 교리문답 첫 번째에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느뇨?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태어났다"고 하였다. 우리 삶의 목표는 사람다운 사람(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느님 모습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느님을 모르면 닮을 수가 없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서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벗을 위하여 내목숨을 바치는 것보다는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셨다.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남을 아끼고 기쁘게 대하고 사랑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 진다. 그리고 "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은 목표는 "나는 사랑을 위하여 산다"라고 오늘 성지순례하는 레지오 단원들은 확신을 갖어야 하겠다. 그리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레지오 단원이 되자.
배론은 이곳 산골짜기가 배밑바닥 같다고하여 배론이라 불리게 되었으며,기념성당 내부도 배모습으로 건축되었다.
배론성지는 황사영 백서를 쓴 곳이다.
배론성지는 한국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진 곳이다.
배론성지는 한국의 두 번째 신부이신 최양업토마스 신부님의 묘소가 있다.
배론성지는 많은 순교자와 박해시대의 교우촌이었다.

레지오 야외행사시 강론요약 (배론 성지 배 신부님)

훈화21 대림시기에 온전히 잘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이하자.

오늘(12.3)은 대림1주일로 대림시기가 시작된다.
이는 구세주 강생의 기다림의 시기이다. 우리의 일생도 시작되면서 마무리하기까지의 시기를 대림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리스도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할 때 '오십시오'를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 여행을 떠나든, 동절기를 보내기 위해서든, 시험을 치르든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하듯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일생은 준비하는 시간이다.

성모님께서도 예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비롯한 주위의 모든 분들이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여 고진감래(苦盡甘來) 하면서 예수 탄생을 준비하고 노력하여 최대의 것을 봉헌하게 되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신앙인, 단원들이 되자.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잘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이하자.

대림 환은 4개의 초를 원 형태로 가꾸어 놓는다. 4라는 숫자는 성서적 의미가 있고 동서남북 4방 등 완전한 의미로 온전히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는 또한 일생 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4개의 초는 짙은 보라색, 연한 보라색, 환한 분홍색, 백색으로 되어 있다. 어두움에서 점점 밝은 색으로 대림주간마다 1개씩의 초가 점화된다. 대림4주간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 인생의 끝에도 구원의 예수님이 오심을 깨닫고 잘 준비해야 겠다.

수원 레지아 지도신부 윤민서 미카엘 ('00.12.3 훈화요약)

훈화22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이다

성모님의 정신으로 순명하고 교회 발전에 봉사하는 레지오 단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를 드린다. 레지오 마리애는 한국 교회의 자랑이며 복음화의 큰 힘이다. 더욱 분발해서 레지오 사도직 수행에 정성을 다하기를 부탁드린다.

여러분은 레지오의 모든 회합과 활동에 있어서 교본의 정신과 규율에 따라 겸손한 봉사와 협력의 기풍을 더욱더 진작시켜 나가야 한다. 레지오가 전 세계에서. 그리고 또 특별히 한국에서 이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성공적으로 사도직을 펴나가는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 저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 구원의 성업을 완수하시기 위해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전도생활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가 나가 재를 지키면서 기도하셨고, 열두 사도를 선발하기 전에는 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하셨으며, 제자들이 전교여행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활동결과를 보고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기쁨에 넘쳐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바치셨다. 타볼산에서는 기도를 하는 중에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 주셨으며, 게세마니 동산에서 지극한 고뇌 중에 바친 기도는 아버지께 달려드는 절규였다. 또한 십자가상에서는 극심한 고통과 번민중에 아버지를 향해 비탄의 기도를 바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만을 찾고 또 그 뜻을 받들어 실천할 영신적 힘을 얻기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당신께 맡겨진 그 위대하고도 어려운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으셨던 것이다.

단원 여러분이 헌신적 봉사를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의탁해야 한다. 모든 단원들은 묵주기도와 까떼나 봉송을 정성껏 바치고 평소의 기도생활에도 열성을 다해야 겠다. 우리는 기도로써 오늘의 세상을 성화하고 개혁할 수 있다.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다. 기도로 표현되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완성하시는 하느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고, 굳세게 해주실 것이다.

수원 레지아 지도신부 윤민서 미카엘 ('00.12.3 훈화요약)

훈화23 레지오 단원은 교회와 사회에서 모범적인 삶을 실천하여야 한다.

하느님 축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고, 복많이 받으십시오.
은총의 대희년이 1.5일(금) 저녁미사로 폐막되었고, 21세기 새천년이 시작되었다. 지상 순례의 여정은 십자가의 길일 수 있으나 올 곧이 갈 길을 가야 한다. 단원이 점차 감소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므로 단원확장에도 노력하여야 겠다. 일부 본당에서 레지오 2차 주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모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많으면 많을수록 레지오의 기본적인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 레지오 단원은 교회와 사회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자제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레지오 단원은 교회와 사회에서 모범적인 삶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0년 대희년은 폐막되지만 한국교회는 교황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신유박해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희년 전대사 기간이 종료되는 1월7일부터 신유박해 200주년을 포함한 2002년 2월4일까지 전대사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린다.

1.17일에는 시노두스 2차 본회의가 있고, 1.18일에는 부제서품식이 있으며, 1.19일에는 교구사제 서품식이 있다. 그리고 1.30일에는 교구사제 인사이동이 있다. 거룩한 사제들이 되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기 바란다.

수원 레지아 지도신부 윤민서 미카엘 (2001.1.7 훈화요약)

훈화24 아름다운 단원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첫째, 봉헌된 자라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삶을 영위해야 한다. 단원이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가운데 모시는 생활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일을 맡기며 생활해야 한다. 단원은 온전히 모두 바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성모님의 원대한 사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너만은 꼭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 자녀, 그 군대의 대열에 나 자신이 서야 한다.
둘째, 바른 길로 가고 바르게 사는 단원이 되어야 한다.
성모님의 부름에 동참했다면 우선 교본을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해야 한다. 교본의 내용을 모르고, 공부하지 않고, 교본을 멀리하며, 교본에 의하지 않고 레지오를 하고 있는 단원은 레지오의 정신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다. 성모님께 불충하는 태도인 것이다. 교본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 힘이 솟고, 성모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체험을 느낄 수 있다. 성아우구스티노의 말을 상기하자. " 그대가 잘 달리기는 하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 그대는 마침내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 레지오 정신이 부족하면 항상 실패하며, 군대로서의 책임감이 없어지게 된다.
셋째, 항상 이웃을 살펴야 한다.
뿌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본 고향을 모르는 이웃을 찾아야 한다.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형제를 찾아야 한다. 감사와 사랑에 인색한 형제를 찾아야 한다. 입으로만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빗나간 형제를 찾아야 한다. 죄와 물질에 묶여 있는 형제를 찾아야 한다.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형제를 찾아야 한다.
넷째, 묵묵히 땀 흘려 아낌없이 봉헌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형제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는 단원이 되어야 한다. 성모님께서는 단원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활로써 보여 주셨다. 정성이 없는 활동은 위선이며 레지오 정신이 아니다. 아주 보잘 것 없는 일이라도 바로 그곳에 성모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내어 정성껏 봉사해야 한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군대인 레지오 단원만을 믿고 계신다. 성모님과 일치하는 성모군대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기쁨을 단원들은 활동으로 보상해야 한다.

「레지오마리애 길잡이」에서 발췌요약 (광주 세나뚜스 단장 김영대 루도비꼬)

훈화25 사순절동안 속죄와 희생, 봉사의 삶을 살도록 하자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교회는 40일 동안 재를 지키게 된다. 사순절은 4세기부터 전래되었다. 성서 속의 40이라는 숫자는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노아의 홍수때 40주야 비가 내렸고, 이스라엘이 복지의 땅으로 가기 위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고, 예언자 엘리아가 하느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기 위해 40주야를 걸었으며,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주야를 엄하게 재를 지켰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전 40주야를 단식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후 승천전 40일간 지상에 머무셨다. 40이란 숫자는 참회와 속죄와 관련되어 있다. 사순절 동안 참회와 속죄로 하느님과 가까워지려는 마음과 행동이 중요하다. 나 자신부터 새로워져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간부부터 쇄신되고 정화되어 단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순절동안 삶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하느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하여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 교회에서 부활이 없으면 존재의미가 없다. 속죄, 희생, 봉사하는 삶을 사는 간부들이 되자.

3월은 성요셉 성월이다. 교본에서는 레지오 수호성인의 한분으로 성요셉을 공경하고 있다. 또한 3월중에는 아치에스 행사가 있는 달이기도 하다. 아치에스 행사는 레지오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모든 단원들은 다른 행사보다 우선해서 이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소속 본당 또는 꾸리아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치 못하면 타본당, 타꾸리아에서라도 참석하여 100% 참석하여야 한다. 성모님께 대한 봉헌사열식으로 단원들이 영적인 군대로서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점검하는 의미도 있다.
경건하고 의무를 다하는 레지오 간부와 단원들이 되자.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양철화 단장 훈화 요약편집 (2001.3.4)

훈화26 성모님 공경의 성서적 근거와 참된 신심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에 대해 바른 신심을 가지고 기도와 활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의 모든 신심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데 성모 마리아 공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탁월한 신앙의 모범으로 다만 존경과 공경을 드리는 것이지 흠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 공경의 참된 의미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루가1,38)」라는 자세로 일생동안 하느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철저히 따른 마리아의 모범을 본받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도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이들을 늘 가까이 하고 만나고 싶어합니다. 모든 인간 중에 또 하늘의 모든 성인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오랜 시간 가까이 계셨고 가장 그분을 많이 닮으신 마리아를 공경하고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줍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통공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즉, 지상과 연옥, 천국의 교회에 속한 이들이 서로 돕고 기도해주며 희생과 공로를 서로를 위해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천국의 성인성녀께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용어사전/작은 예수)" 따라서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기도 즉, '전구'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개신교 신자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데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은 개신교 용어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천국의 성인들은 물론이요 주님을 본받아 인류를 사랑하시는 성모님이야말로 누구보다 지상의 우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실 분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이러한 청을 기뻐하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이토록 큰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돕고자 하시는 성모님께 다가갈 수 있음은 큰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골고타 언덕에서 요한에게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어머니이심을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서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이가 곧 당신의 어머니요,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성모님이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머니이심을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공경하고 본받아야할 어머니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루가복음에서는 성모님을 칭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루가1,28)>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루가 1,45) 라고 하시며 존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성서는 마리아를 진정 참 신앙을 가진 복되고도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돈독한 분을 존경하고 따르고자 합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가 천국에서 현존해 계신 성모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기도를 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바오로딸 "마리아공경의 성서적 근거와 '기적의 메달'의 의미"에서 발췌 편집

훈화27 사랑은 적극적인 봉사

성모 성월 마지막 날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이다. 오월은 참 좋은 계절 같다. 사월의 봄꽃들이 진 자리마다 푸른 잎이 돋아나, 꽃보다 더 곱고 싱그러운 자태를 뽐낸다. 서둘러 여름 날씨로 바꾸기라도 할 듯이 초목들은 벌써 푸른 그늘을 드리운다. 그래서 일찍이 오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했다. 이 달은 어린이날이 있어 즐겁고, 어버이날이 있어 흐뭇하고, 스승의 날이 있어 감사하다. 또 교회는 ‘성모 성월’을 지내므로 더욱 은총이 충만한 때인 것이다.

그런데 오월은 휴일도 많고, 계절이 계절이니 만큼 잔치와 행사들이 줄을 이어 한 몸으로 쫓아다니기에 버겁고 바쁜 시절이다. 당연히 지출도 늘어나 웬만한 사람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그래서 힘든 달이라고도 말한다. 특히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어머니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숱한 희생과 노고는 우리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삶을 일구어나가는 것들이며, 그것은 인간 삶의 바탕인 ‘사랑’에서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 힘으로 그런 희생과 수고를 치르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성모 성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한다. 성모님의 삶에서 하느님의 사랑에 성실하게 응답한 모습을 찾아본다.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스스로 “주님의 종”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 임신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하고 함께 지내며 ‘적극적으로 봉사’하였다. 이 방문으로 ‘성모의 노래’(Magnificat)라는 아름다운 찬미의 노래가 생겨났으며, 엘리사벳의 뱃속에 든 아기 요한이 성화되었다(루가 1,44).

그렇다면, 성서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축제일로 받아들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을까? 처음 시작한 것은 비잔틴 동방교회로, ‘성모님의 거룩한 옷‘(블라쉐르느)을 안치한 기념성당에서 축일을 지내면서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복음 이야기를 봉독하였다. 축일은,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6월 24일)의 팔일 축제 다음날인 7월 2일에 지냈다. 중세 때 이교들이 창궐하였는데, 14세기말 성모님의 중재로 이것을 중단시키려고 이 축일을 제정하였고 이후로 교회에 널리 전파되어 지내게 되었다

특히 바젤 공의회에서는 고유 미사 기도문을 도입하여 더욱 장려하였고, 15세기에는 여러 수도회들이 이 축일을 받아들여 고유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리고 17세기에 와서 ‘성모의 엘리사벳 방문 축일’이란 이름으로 완전히 정착하게 된다. 끝으로 새 전례력에서는 이를 성모성월 마지막 날인 5월 31일로 옮겨서 거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축일이 교회 안의 신자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성모님의 엘리사벳 방문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성모님의 깊은 사랑의 태도,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적극적인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모범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날 미사에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독서가 마련되어 있다.

스바니아서(3장)는 ‘시온의 딸’(성모님의 예표)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으며, 로마서(12장)는 성모님이 친척을 찾아가신 이야기를 가리켜 깊은 형제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화답송은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찬미’라고 노래한다.

복음은 당연히 엘리사벳 방문 이야기이다. 문안 인사로 요한이 즐거워하고, 성모님에 대한 칭송이 곧 주님 찬미의 노래로 이어진다. 그리고 성모님은 임신한 엘리사벳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봉사하게 된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날 축일의 미사 고유 기도문을 통해서 이를 잘 일깨워주고 있다.
①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살아야 한다.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것은 성 령의 인도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성모님처럼 주 님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본기도).
②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수고하여야 한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셨다. 그 사랑을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셔서 구원의 제사로 삼으셨다. 곧 우리가 봉헌하는 구원 제사도 모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예물기도)
③ 그리스도를 만나 함께 지내는 생활을 해야 한다. 뱃속에 든 요한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나 기뻐 뛰놀았듯이, 우리도 성체 안에 감추어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받아 모셔야 하는 것이다.(영성체 후 기도)

오월의 마지막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은 성모 성월을 마무리짓는 날이기도 하다. 성모 성월을 지내면서 이 축일이 보여주고 기념하는 성모님의 사랑의 태도를 깊이 묵상해 보자. 성모님의 달, 역시 좋은 계절이다.

나기정 다니엘 / 신부·대구 효성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

훈화28 레지오 단원의 은총생활

레지오 단원들은 평신도로서 특별한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또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레지오 단체에 속한 단원은 평신도 수도자 또는 준 수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레지오의 성소를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

정단원은 성령께 대하여 선서를 하였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기로 다짐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아치에스 행사를 통해서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구원의 협력자, 은총의 중개자로서 우리는 성모님과 일치하고 의탁하면서 기도하고 활동을 합니다. 충실한 레지오 단원들은 은총의 생활을 하는 것이 되며, 성모님과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레지오를 진정 사랑하는 단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지오를 사랑함은 성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레지오 간부를 비롯한 단원들은 레지오 조직에서 요구하는 일들에 대해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쁘레시디움에서 활동배당이 없고 활동보고가 없게 되면 레지오 조직은 침체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쁘레시디움은 상급평의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상급평의회와의 통신교환과 교류가 없게되면 레지오의 생명선이 끊기는 결과가 되며, 나무라는 조직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레지오는 교회가 공인한 단체이므로 레지오의 규율과 레지오 특성에 따른 관리와 운용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레지오마리애 길잡이'에서 발췌편집

훈화29 레지오 단원과 성체신심

성체는 그리스도님의 몸과 피의 현존을 드러낸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체는 단원들의 보화입니다. 성체는 사랑과 일치의 성사입니다. 성체는 하나 하나의 영혼을 통하여 그리스도 신비체 전체를 양육합니다. 레지오 단원은 성체신심을 굳건히 간직해야 합니다. 성체는 은총의 중심이요, 원천입니다. 성체는 레지오 조직의 머릿돌이 되어야 합니다. 레지오 단원들이 열렬히 활동하는 것이 성체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체를 가슴에 모셔들임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6,51-52)
무한한 은혜인 성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성체안에 항상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단원들은 언제라도 자유로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고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나약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정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가슴에 모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감사히 새겨야 하고 소중하게 간직해야겠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나의 생명소를 잃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항상 단원들은 언행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든지 가슴에 모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합니다. 단원은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성스러운 성모 군대라는 것을 항상 되새기며 흐트러지지 않는 몸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언행을 실천하고 모든 이의 모범이 되어 하느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성체를 모신 사람은 모든 일과 생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비체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그 지체들인 단원들을 양육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단원들은 하늘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단원들은 성모님의 모성적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누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슬픔과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단원들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냉담교우들을 찾아내고, 인생의 방향을 못잡고 방황하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안내하며 구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형제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이는 레지오 단원들의 의무입니다.

「레지오마리애 길잡이」에서 발췌요약 (광주 세나뚜스 단장 김영대 루도비꼬)

훈화30 연차 총 친목회에 대하여

1922년 9월 10일 레지오 마리애 창립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던 축하회가 연차 총친목회의 시작이 되었다. 그 다음 해 부터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2월 8일)로 옮겨 계속 실시되었고, 지금도 이 대축일을 전후해서 매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차 총 친목회는 행동 단원들로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단원들이 이 기회를 통해 서로 친숙해져서 형제애로 일치를 이루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행사는 여러 가지 의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먼저 레지오 가족의 자축과 즐거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이 행사는 전체 레지오 단원들을 하나로 묶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일년동안의 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 진행순서로는 레지오의 기도문을 회합 때처럼 세부분으로 나누어 바친다. 진행 프로그램을 여흥으로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레지오와 관련된 담화나 글을 곁들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활동체험담, 훈화, 성모께 드리는 편지나 시, 각 쁘레시디움의 현황과 단원소개 등도 곁들이면 좋을 것이다.

이 행사를 위한 한국 레지오의 의연금 지출 허용은 이미 반세기동안 굳어진 관행처럼 되어 있다. 특히, 일부 지각없는 꾸리아의 과다 지출은 한국 레지오를 약화시키는 커다란 해악으로 지적 받고 있다. 꼰칠리움은 이러한 우리의 옳지 못한 관행에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원래의 정신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원래의 정신이란, 꼰칠리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면, 차 한잔과 약간의 비스켓을 가리킨다. 따라서 마땅히 꼰칠리움의 지시에 순명해야 하는 세나뚜스로서는 소속 꾸리아의 간부(특히 단장)들이 이 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분별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정신의 회복'을 위해 앞장 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레지오마리애 관리운영 지침서' 및 '레지오마리애 교본해설' 서 발췌편집

훈화31 레지오마리애는 사랑에 기초를 두고 봉사한다.

성모마리아는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셨기에 사랑 자체이신 성자를 잉태하고 낳으셨다. 레지오마리애는 마리아의 강력한 사랑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레지오의 정신은 마리아의 정신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 주기를 열망한다. 레지오는 마리아의 사랑에 감도되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려고 한다.

레지오마리애는 사랑에 기초를 두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선교하는 단체이다. 레지오 수호성인들중의 하나인 바오로 사도는 믿음, 희망, 사랑의 향주삼덕(向主三德)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였다. 남에게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사랑의 의무이다.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 레지오는 사랑의 기초를 각 사람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다. 레지오는 대열 안팎의 사람들과 다른 가톨릭 단체들, 그리고 성교회의 사목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1. 레지오 대열에 참가할 사람들에 대한 사랑
레지오에 입단하는 데에는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고 받아들여 야 한다.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만이 레지오 대열에 참가할 사람들에 대한 유일한 검토대상이다.
2. 레지오 대열 안에서의 사랑
레지오 단원들 간의 사랑은 가식이 없어야 하고 순박하고 진지해야 한다. 단원 들이 지켜야 할 사랑과 동정심은 먼저 레지오 안의 단원들 간에 발산되어야 한 다. 단원들이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3. 다른 단체들에 대한 사랑
레지오는 다른 가톨릭 단체들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다른 가톨릭 단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만큼 교회발전에 손실이 있는 것이다. 모든 신자들을 레지오 대열에 참가시킬수는 없으므로 이들을 교회내의 어느 단 체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어야 한다.
4. 성교회의 사목자들에 대한 사랑
레지오는 영적 아버지인 동시에 사목자인 사제들에게 자녀다운 사랑과 존경심 과 순종을 보여야 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기도로써 사제들의 걱정과 고통을 분 담해야 하고 가능하면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목을 도움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 고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

최경용 신부 교본해설 발췌편집

훈화32 성모님은 우리를 성삼위 안의 삶으로 이끄신다

우리 레지오 마리애 창설 80주년을 경축하면서 그동안 하느님께서 당신의 비천한 여종 그리고 열성적인 레지오 단원들을 통하여 베푸신 놀라운 은총으로 이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이끄셨음을 묵상하면서 감사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1921년 9월 7일 프랭크 더프 형제가 레지오 마리애를 창설하는 은총을 입은 것은 그보다 약 200년 전에 몽포르의 루도비코-마리아 성인이 쓰신『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을 발견함으로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참된 신심』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느님의 종 프랭크 더프는 구원 사업에서 복되신 성모님께서 필수불가결한 근본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 그 후 얼마 안있어 그는 레지오를 창설하면서 루도비꼬-마리아 성인의 가르침을 기본 영성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80년간 레지오를 통하여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고, 이는 성모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며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모성애를 쏟는 것입니다.

이번 창립일을 기념하면서 로마에서 중요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는데, 그 주제는 "성 루도비꼬-마리아 - 성모 마리아와 연관된 성삼위의 영성"이었습니다. 이 학술대회의 목적은 이 성인이 연구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 결국 성삼위께 대한 참된 신심으로 심도있는 결실을 맺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루도비코-마리아 성인이 참된 신심 속에서 우리에게 성모님을 보여주는 것은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복되신 성삼위 각위께서 펴시는 사랑과 활동의 자리에 계신 성모님을 뵙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성삼위와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 "성모님은 우리를 성삼위께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매일 성모님께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면서 성모님과 결합한다면 확신과 무한한 사랑 속에서 성부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고, 자신을 그리스도님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나는 전 세계의 레지오 단원들이 우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프랭크 더프를 본받아 몽포르 성인의 『복되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실천하고 이 두 분이 받은 놀라운 은총을 묵상하도록 권합니다.

아울러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교본 제6장 5절을 일고 더 나아가서는 몽포르 성인이 지으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공부하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하느님의 종 프랭크 더프는 이를 강력히 권하면서 교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보잘것없는 밀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달려가 성모님의
팔에 안겨드리자. 그리하여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것을 더욱 크게
불리시어 이 세상 메마른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무수한 영혼들을
먹여 기르시도록 해 드리자." (교본 69쪽 9-12줄)

꼰칠리움 영적지도자 요셉 모란 신부(레지오 마리애 창설 80주년 기념 훈화) 발췌편집

훈화33 레지오의 선서문에 대하여 (교본 제15장 : 141-143면)

레지오의 초창기 회합에서 단원들은 수련기와 선서식에 대해 결의하였다. 곧 수도회의 수련기와 허원식을 모방해서 예비 단원의 수련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정규 단원이 되려면 반드시 레지오 단기를 손에 쥐고 선서문을 읽는 선서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레지오의 선서문은 정규 레지오 단원으로 등록되기 위해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성령께 봉헌하는 기도문으로 이 선서문은 성령과 마리아, 사도직 정신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지닌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가 지은 봉헌문을 모방해서 프랭크 더프가 만들었는데 레지오 마리애의 조직 체계 안에 선서 제도가 있어야 하며, 그 선서는 반드시 성모님을 통해 성령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은총의 전달자는 성모님이시지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이었다.

선서문의 첫 구절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저(성명과 세례명)는 오늘 레지오 마리애 단원으로 등록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는 합당한 봉사를 드릴 만한 능력이 없사오니 저에게 오시어 저를 당신으로 채워 주소서."이다. 이처럼 모든 레지오 단원은 예수님 탄생 예고 때에 마리아께서 "예,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응답한 것을 본받아 성령께 봉헌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성령은 모든 은총과 거룩함의 근원이시고 영성 생활의 원동력이시다. 단원들의 성화와 사도직 활동에서 성령 신심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레지오는 회합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성령께 대한 기도부터 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어떠한 사도직 활동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 레지오 단원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사도직 활동을 수행한다. 성령께 봉헌한 레지오 단원은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로써 내실(內實)을 기하고 밖으로는 선행, 봉사와 선교 활동을 한다. 곧 행동이 따르는 믿음을 실천한다.

그러므로 레지오의 선서문을 알지 못하면 레지오의 성령 신심뿐 아니라 레지오의 사도직과 영성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쉬에넨스 추기경은 "레지오 선서문은 성령과 성모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두 사랑의 계약임을 드러낸다. 곧 성령은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하느님의 사랑이고 성모님은 하느님께 올라가는 인간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라는 사도신경 구절처럼 두 사랑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계약의 매듭이다"라고 하였다.

"제가 레지오 단원으로서 충실하게 봉사하는 비결은 당신께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시는 성모 마리아와 온전히 일치하는 것임도 잘 알고 있나이다. ......당신의 권능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제 영혼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시어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성모님의 사랑과 뜻에 일치하게 해 주소서."라고 성령께 선서를 한 모든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을 본받아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성모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개인 성화와 사도직 활동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사목'지 게재 최경용신부 훈화 발췌>

훈화34 레지오의 상급단원에 대하여(교본 144-146,149-150면)

레지오 창설자 프랭크 더프는 개인 성화를 중요시하여 레지오의 목적에 개인 성화를 포함시켰다. 그는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소책자를 저술하였으며 단원들 모두가 레지오 마리애를 통해 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개인 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특히 그는 성무일도와 뗏세라에 있는 기도를 중요시하였다. 그는 성무일도를 하느님과의 순수한 친교로 여겼고 여행할 때에도 성무일도서를 꼭 가지고 다녔다. 그는 또한 미사 참례와 영성체를 개인 성화의 지름길로 여기고 하루 일과의 추진력으로 삼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매일 실천하였다.

프랭크 더프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레지오 조직 체계에 일반 단원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두 등급의 단원 제도를 두었다. 이 제도를 라틴어로 쁘레또리움과 아듀또리움라고 부른다. 쁘레또리움은 고대 로마 군단의 친위대이며 정예 부대인데 레지오에서는 일반 행동 단원보다 더 높은 등급의 행동 단원 제도이다. 아듀또리움은 협력, 조력, 협조, 구조, 보조를 뜻하며 레지오에서는 일반 협조 단원보다 더 높은 등급의 협조 단원 제도이다. 쁘레또리움 단원을 쁘레또리안(Praetorian), 아듀또리움 단원을 아듀또리안(Adjutorian)이라고 한다.

이러한 두 부류의 상급 단원이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할 신심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뗏세라(Tessera)에 있는 모든 기도를 매일 바친다. (2) 매일 미사참례와 영성체를 한다. (3) 교회에서 공인된 성무일도(레지오의 성모 소일과 포함)를 매일 바치는 것이다.

교본 본문의 말대로 레지오 단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은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와 사도직에 참여하는 일이다. 단원들에게 쁘레또리움과 아듀또리움의 자격을 주는 것은 그들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미사와 영성체는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교회의 중심 전례이다. 그리고 성무일도는 교회가 바치는 공동체 기도로서 시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레지오 현황에 따르면 행동 단원 29만여 명 중 쁘레또리안은 1만2천여 명, 아듀또리안은 5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상급 단원은 일반 단원보다 좀 더 신심 행위를 많이 하는 것밖에 다른 점이 없으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의무를 실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든 단원은 개인 성화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좀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상급 단원이 되기를 바라야 한다. 영적 지도자와 단장은 상급 단원 제도를 강조하고 많은 상급 단원 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에게 아듀또리안이 되도록 권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미사와 영성체, 성무일도를 바치고 있으며 추가로 묵주기도가 포함된 뗏세라의 기도만 바치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레지오와 유대를 맺는다면 그들의 기도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 레지오를 끌어 줄 것이다.

<'사목'지 게재 최경용신부 훈화 발췌>

훈화33 협조단원에 대하여 (교본 147-148,150-159면)

협조 단원은 행동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레지오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로써 레지오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행동 단원이 레지오의 전투 부대원이라면 협조 단원은 레지오의 보급 부대원이나 예비군에 해당된다. 협조 단원은 전세계의 영혼을 대상으로 펼치는 레지오의 싸움과 구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봉사한다.

협조 단원 자격에는 신분, 나이, 지역의 제한이 없다. 사제나 수도자 또는 평신도 모두가 레지오의 협조 단원이 될 자격이 있다. 협조 단원 후보자의 이름은 3개월의 수련 기간 동안 임시 명부에 올렸다가 수련이 끝나면 정식으로 일반 협조 단원 명부에 기재됨으로써 자격을 얻게 된다.

협조 단원이 매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기도는 뗏세라에 있는 모든 기도문이다. 곧 성령 호도(呼禱)와 기도, 묵주기도 5단과 그 뒤를 잇는 호도 그리고 까떼나와 마침기도이다. 이 기도는 몇 번에 걸쳐 나누어 바칠 수 있다. 이미 어떤 지향을 두고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협조 단원이 되었다고 해서 추가로 묵주기도를 더 바칠 의무는 없다.

협조 단원의 기도는 자신이 소속된 쁘레시디움이나 세계 레지오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지향과 영광을 위해 바친다. 레지오의 모후께서는 협조 단원의 기도를 받아 레지오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서 배려하실 것이다. 협조 단원은 "티없으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에게 허락된 기도와 수고와 고통을 바치오니 당신 뜻대로 쓰시옵소서."와 같은 기도로써 성모님께 매일 자신을 봉헌함이 바람직하다.

협조 단원은 레지오의 날개와 같아서 협조 단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레지오는 그만큼 넓고 큰 날개를 갖게 되며, 그들이 바치는 힘찬 기도의 날개짓으로 레지오는 초자연적인 이상과 더 큰 봉사를 향해 높이 치솟아 오른다. 레지오의 협조 단원이 되면 은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전에는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지 않던 신자들이 협조 단원이 됨으로써 자발적으로 묵주기도를 포함한 뗏세라의 모든 기도를 매일 바친다. 병원의 입원 환자나 사회 복지 기관에 수용된 신자들이 협조 단원이 됨으로써 삶의 활기를 되찾게 된다. 미지근한 신앙 생활을 하던 신자들이 협조 단원이 되면서부터 자신들도 교회에 쓸모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행동 단원은 주변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다른 단체 회원들까지도 협조 단원이 되도록 협조 단원 모집에 힘써야 한다. 협조 단원이 적으면 레지오의 전투 능력은 약해진다. 우리나라의 레지오 현황을 보면 협조단원 숫자가 행동 단원보다 훨씬 적다. 적어도 행동 단원마다 한 명씩의 협조 단원이 있어야 균형을 이루고 전투 능력도 강해질 것이다.

그런데 협조 단원 모집도 중요하지만 협조 단원 돌봄도 중요하다. 레지오는 협조 단원들의 기도와 레지오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그들과 꾸준히 접촉하며 돌보아야 한다. 주회에서 단장은 반드시 단원들에게 협조 단원 모집과 돌봄을 확인해야 한다.

<'사목'지 게재 최경용신부 훈화 발췌>

훈화36 사순절(사순시기)의 의미와 단원의 삶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교회는 40일 동안 재를 지키게 된다. 성서 속의 40이라는 숫자는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신. 구약에서 보면 첫째는, 창세기 6, 7장에 나타난 노아의 홍수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멸하고자 노아를 제외하고는 40주야의 큰비로써 벌하신 사실이 있다. 둘째는,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께서 만나를 내려 먹여 주신 사실이다(출애굽기 16:15-35). 셋째는, 모세가 주님의 명대로 시나이 산에 올라가 십계판을 받기 전에 40주야를 그 산에서 엄하게 재를 지켰다(출애굽기 24장). 넷째는, 예언자 엘리야가 살아날 가망이 없어서 호렙산에 피해 가다가 지쳐서 어느 싸리나무 덤불 아래 드러누워 잤을 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어라"하며 흔들어 깨우기에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 낸 과자와 물 한 병이 있어 먹고 마시고는 또 갔다. 다시 같은 말을 듣고 또 먹고 마시고 한 다음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다달아 거기서 주님을 뵈온 일이 있다(열왕기 상 19:1-8). 다섯째는, 예언자 요나가 주께 죄악의 도시 니느웨로 보냄을 받아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 "고 한, 즉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통회보속하여 용서함을 받은 사실이 있다 (요나 3장 참조). 여섯째는, 예수님 자신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40주야를 단식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후 승천전 40일간 지상에 머무셨다.

위의 몇 가지 사실에 나타난 40이란 숫자는 그만큼 오랜 기간을 표현한 것으로 여기에 공통되는 점은, 그 기간은 결코 복된 기간이 아닌, 도리어 슬프고 근신 절제하며 속죄하는 기간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40일 동안 말을 적게 하고 단식, 금육식, 기도, 그리고 영적 독서, 그리고 우리 사회와 세계가 주님의 자비를 받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의 빵을 우리는 목말라 해야 하고 이것을 먹어야 엘리야처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 매일 다른 성경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아가 몸담았던 배, 모세가 머물고 있었던 산, 엘리야가 가던 길, 그리고 예수님이 단식하시던 광야를 상징하는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조건에서 성령께 인도되어 살아갈 것이다.

사순절 동안 참회와 속죄로 하느님과 가까워지려는 마음과 행동이 중요하다. 나 자신부터 새로워져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간부부터 쇄신되고 정화되어 단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순절동안 삶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하느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하여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 속죄, 희생, 봉사하는 삶을 사는 간부와 단원들이 되자.

[주바라기] 및 레지오 훈화자료 발췌 편집

훈화37 아치에스 행사에 대하여 (교본 p260)

레지오 마리애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단원들은 해마다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해야 한다. 개인 및 단체 봉헌으로 이루어지는 이 봉헌식은 3월 25일을 전후해서 개최하는데, 이를 아치에스(the Acies)라 부른다. 아치에스는 라틴어인데 '전투 대형을 갖춘 군대'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말은 레지오 단원들이 단체로 레지오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대한 충성을 새로이 다짐하고, 성모님으로부터 앞으로 한 해 동안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힘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의식을 가리키기에 적당한 말이다.

아치에스는 레지오에서 가장 크고 중심을 이루는 연례 행사이므로, 모든 단원이 빠짐없이 이 행사에 참석해야 함은 강조되어 마땅하다.

아치에스 봉헌식을 통하여 단원들은 개인 및 단체로서 성모님께 대한 충성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단원이 능히 참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참한다면, 그는 레지오 정신이 아주 희박하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단원을 레지오에서는 필요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의식은 성가로 시작하며, 이어서 시작 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친다. 그 다음 사제가 성모님께 대한 봉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론을 한다. 강론이 끝나면 성모상을 향하여 봉헌 행진을 시작한다. 제일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한 줄로 나가고, 이어서 단원들이 역시 한 줄로 그 뒤를 따른다. 단원 수가 많을 때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나갈 수도 있다. 벡실리움 앞에 이르면 각 단원(또는 짝을 이룬 두 단원)은 멈추어 선다. 그리고 벡실리움의 깃대를 잡고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한다.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직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아치에스의 특징은 질서와 엄숙한 분위기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단원들이 제자리에 돌아와 앉으면, 사제가 단원들을 대표하여 성모님께 대한 봉헌 기도문을 다시 한 번 큰소리로 바친다. 이어서 단원 모두가 일어서서 까떼나를 바친다. 그 다음, 가능하면, 성체 강복 예절을 가진 후 마침 기도와 성가로써 아치에스를 마친다.

훈화38 단원 양성을 위한 도제 제도에 대하여 (교본 105-107면)

본당마다 거의 복사단(服事團)이 있다. 복사 단원들은 둘씩 짝지어 제대 복사를 한다. 대개 둘 중에 한 명은 복사를 잘하는 고참이고 한 명은 아직 서투른 신참이다. 처음부터 복사를 잘하는 학생은 없다. 실습을 통해 고참이 신참을 지도해 주면 비로소 신참 혼자서도 복사를 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양성 방법을 도제(徒第) 제도라고 한다.
병원의 의사도 실습을 통해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레지오 마리애에서도 단원 양성 방법으로 도제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어떤 직종이나 기능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쓰이는 이상적인 훈련 방식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도 대장장이, 도공(陶工)에 이 제도가 적용되었다.
도제는 실습으로써 스승의 지도를 받는 수공업의 수련공을 의미한다. 도제 제도란 중세기에 수공업의 기능 후계자를 양성하던 방법으로 오랜 기간 제자가 스승 밑에서 수련하여 숙련공이 되면 독립하여 영업을 하며 그 역시 수련공을 두어 기능을 전수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제자 양성 방법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줄곧 따라 다니도록 하면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배우도록 하셨다. 그들을 둘씩 짝지어 파견함으로써 실습하도록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교육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이다.
레지오 활동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양성 방식을 본떠 고참 단원과 신참 단원을 짝지어 준다. 신참 단원들은 레지오 정신이 투철하고 활동 경험이 많은 간부들이나 고참 단원들과 짝지어 활동하게 됨으로써 활동 요령과 방법, 레지오 정신 등을 배우고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근래에는 도제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둘씩 짝지어 활동 배당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쁘레시디움의 평가 기준의 하나는 도제 제도 실시 여부이다. 조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조별 활동 보고가 제대로 실시되는 쁘레시디움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쇠퇴할 것이다. 교본의 말대로 "지루한 강의 대신 스승이 제자에게 활동거리를 내놓고, 시범을 통하여 활동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실제로 함께 해 나가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제자는 스스로 그 활동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가운데 터득하게 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유능한 단원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다."
레지오 교육을 실시할 때도 이론만 주입시키는 강의식 교육이 되어서는 도제 제도에 부합하지 못한다. 강의를 하게 된다면 활동과 실천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레지오의 도제 제도는 이론과 실제가 결부된 심리학적 방식을 사용한다.
레지오의 도제 제도는 주 회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주 회합은 레지오의 단원 양성 학교이다. 쁘레시디움에서 새 단원이 레지오의 규율과 규칙을 배우며 주회 출석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와 공부를 하고 활동 보고 요령을 배우는 것도 도제 제도에 따른 단원 양성 방법이다.
도제 제도는 레지오 마리애의 활성화 방법이고 유능한 단원으로 양성시키는 이상적인 교육 방법이다. 따라서 둘씩 짝지어 활동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이 제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사목'지 레지오 훈화(최경용신부)에서 발췌

훈화39 개인 성화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교본 108-109면)

레지오 단원은 성화(聖化)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태 16,26) 개인 성화는 자신의 구원이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구원하겠는가? 개인 성화는 레지오의 목적인 동시에 으뜸가는 실천 방법이고 활동 수단이다. 단원 자신이 성화되지 않고서는 값있는 활동을 하기 어렵다. 단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전달할 때에는 자신이 지닌 은총만큼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지오의 전체적 목적은 성화의 모델이신 성모님을 통해 단원들을 성화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신비체의 모든 지체들을 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가득차고 온 누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권능을 행사하는 데 도구로 써 주시도록 간청하면서 단원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개인 성화는 하느님의 은총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방법은 기도와 성사이다. 레지오 단원은 까떼나와 묵주기도를 매일 바쳐야 할 것이다. 아침, 저녁 기도와 묵상, 성서 봉독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정도 중요시하고 성체 신심을 가져 평일 미사에도 자주 참례하고 영성체 해야 할 것이다.
단원들은 먼저 성모님의 성덕을 본받아야 한다. 성모님께서는 개인 성화의 표본이시다. 성모님께서는 여러 가지 덕으로써 개인 성화를 이루셨다. 성모님의 덕은 겸손, 순명, 온유, 기도, 고행, 순결, 인내, 지혜, 사랑, 믿음 등이다. 이러한 덕은 바로 레지오의 정신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레지오 정신을 지녀야 한다.

단원들은 또한 레지오의 창설자인 프랭크 더프의 성덕도 본받아야 한다. 프랭크 더프는 성인(聖人)이 되고 싶어서 봉사 활동과 더불어 개인 성화에 주력했다. 그가 영적 성장을 하게 된 계기는 영적 독서와 봉쇄 피정이었다. 그는 특히 성인전을 즐겨 읽었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성인들의 사랑은 그에게 성인이 되고자 하는 원의를 새겨 주었다. 1916년 27세에 그는 처녀작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는가？](Can we be Saint？)를 출판하였다. 그는 이 소책자에서 "성인이란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자신의 일상 의무를 특별히 잘 이행하는 사람"(8면)이라고 하면서 완덕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의견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예수회 신부를 영적 지도자로 삼아 자주 고해성사를 보고 영적 지도를 받았다.

그는 또한 25세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미사 참례를 했고 만년에는 매일 두 번 미사 참례를 했다. 그는 성체 조배도 자주 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시간에 인색하지 않았다. 그는 가르멜 수도회 제3회원이 되어 성모 소(小)성무일도를 바치다가 후에 완전한 성무일도를 날마다 바쳤다. 그는 이처럼 거룩한 생활을 했으므로 시복(諡福)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에델 퀸(Edel Quinn)도 프랭크 더프를 본받아 아프리카에서 레지오 선교사로서 성덕을 닦았다. 그녀는 1994년 12월에 가경자(可敬者：Venerable)로 선포되었다.

레지오 단원은 이러한 분들을 본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고 개인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사목'지 레지오 훈화(최경용신부)에서 발췌

훈화40 레지오의 상훈(常訓)에 대하여 (교본 167면)

가정에서 가족을 위한 교훈으로서 가훈(家訓)이 있듯이 레지오에서는 단원들을 위한 상훈(常訓)이 있다. 상훈은 레지오 단원이 항상 지켜야 하는 복무 규정이다. 쁘레시디움 단장은 단원들에게 레지오의 규율과 복무 규정을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단장은 매월 첫 주회에서 서기의 회의록에 서명한 다음 앉은 채로 상훈을 낭독한다. 상훈은 매우 중요하므로 활동 계획표 안에 함께 적어 넣거나 별도로 간직하여, 낭독할 때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훈은 세계 최초의 쁘레시디움과 꾸리아 단장을 역임한 엘리사벳 커완(Elizabeth Kirwan)이 만들었다. 최연장자인 그녀는 레지오 단원들을 아주 엄하게 다루었다. 처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는 단장들을 위해 복무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다가 레지오가 괄목할 정도로 성장, 발전하게 되자 레지오를 잘 모르는 신입 단원들에게 레지오의 상훈을 알려 줄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낭독되고 있는 네 가지 조목의 상훈이 작성된 것이다.

레지오의 상훈은 교본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288-316면 참조)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무를 발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쁘레시디움 주회합에 규칙적으로 정각에 출석하여,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하여 알맞고 또렷한 보고를 한다."
단원이 주회에 출석하는 것은 으뜸가는 의무로서 규칙적으로 정각에 출석해야 한다. 그리고 회합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도 활동을 잘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원들은 반드시 주간에 2시간 이상의 활동 의무를 채운 다음 주회에서 알맞고 또렷한 목소리로 보고해야 한다.
"둘째, 까떼나를 매일 바친다."
고리 또는 사슬이라는 뜻을 지닌 까떼나(Catena)는 단원과 단원, 단원과 성모님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 기도이다. 고리 기도에서 고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단원들은 날마다 까떼나를 바쳐야 한다.
"셋째, 믿음의 정신으로 성모님과 일치하여, 실질적이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며, 그 활동 대상자와 동료 단원들 안에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금 뵙고 섬기시듯이 한다."
이 상훈은 그리스도의 신비체 교리와 관계되는 내용이다. 각 단원은 레지오 활동을 함께 하는 동료 단원들과 활동 대상자를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로 여겨 마치 성모님이 모성애로써 머리이신 당신 아드님 그리스도를 뵙고 섬기시듯이 보살피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회합에서 토의된 사항이나 레지오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지킨다."
레지오 단원은 회합에서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좋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 기밀을 누설하는 배신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사목'지 레지오 훈화(최경용신부)에서 발췌

훈화41 활동 보고에 대하여 (교본 169-173면)

쁘레시디움 회합 순서와 진행에서 활동 보고 시간이 가장 길다. 보고를 하다가 시간이 모자랄 것에 대비하여 활동 보고를 계속할 수 있는 시간까지 배려해 놓았다. 그런데 주회합에 참석해 보면 활동 보고에 소요된 시간이 시작 기도에 소요된 시간보다 짧은 경우가 종종 있다. 보고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원들은 한결같이 형식적인 보고를 하고 단장은 한꺼번에 모든 단원의 보고를 받아 버린다. 그리하여 전체 회합 시간이 한 시간도 채 넘지 못한다. 이러한 쁘레시디움 단원들은 활동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쁘레시디움은 활력을 잃고 만다.

활동 보고는 회합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마치 중추 신경처럼 회합 전체 분위기를 밝고 명랑하게 만들기도 하고 썰렁하고 활기 없게 만들기도 한다. 활동 보고의 목적은 두 시간 이상의 주간 활동 체험을 서로 나누고 단원의 복무 상태를 확인하며 활동에 대한 흥미를 돋우고 회합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활동 보고에 익숙해지면 용기와 발표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원활한 활동 수행 방법과 활동 보고 방법도 터득하게 된다.

활동 보고를 할 때에는 먼저 활동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면서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조리 있게 발표해야 한다. 판에 박은 듯한 표현은 활동 체험을 나누지 못하고 활동에 관한 흥미나 정보를 주지 못한다. 따라서 보고할 때에는 어떤 정신으로, 어떤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시도했고, 어떤 결과였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소요된 시간은 얼마이고 달성하지 못한 활동은 무엇이며 아직 접촉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의 내용도 보고해야 한다.

활동 보고는 예수님의 방법을 본떠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구두로 보고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견한 다음 구두로 활동 보고를 받으셨다. 조별 활동 보고는 한 사람이 보고한 다음 보충하고 수정할 사항에 대해 다른 한 사람이 보고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두 명이 함께 활동하기 곤란할 때는 단장 계획서에 조별로 두 명의 이름을 적고 각자가 자신의 활동을 보고한다. 활동 보고는 단장이 배당하고 지시한 활동에 대한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도는 활동이 아니므로 단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활동 보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 방식은 먼저 성모상을 한 번 바라보고 자신의 성(姓)과 세례명을 밝힌 다음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능한 한 레지오 활동 수첩에 기록한 것을 토대로 하여 단장과 단원들을 향해 큰소리로 보고한다. 활동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활동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보고할 것이 아니라 사유를 밝히고 "분발하겠습니다."라고 덧붙여야 할 것이다. 활동도 없고 해명도 하지 않는다면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인상을 풍겨 동료 단원들에게 좋지 못한 본보기만을 남기게 된다. 반면에 모범적인 활동을 한 단원에게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겠다.

단원들에게는 모범적인 보고를 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성모님께서 보고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상상하면서 좋은 보고를 하려고 힘쓰는 단원은 어느 면에서나 불성실한 보고를 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사목'지 레지오 훈화(최경용신부)에서 발췌

훈화42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신심행위

1. 마리아에 대한 교회 가르침
구약성서에는 마리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신약에서도 짤막하고 드물다. 따라서 성서를 통해 '역사적 마리아'를 알아내기는 힘들며 다만 하느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과 그 위치를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성서에서의 마리아는 복음선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 그 어머니로서 언급되며 또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참된 신앙인 의 모범으로 드러난다. 마리아에 관한 교의는, 평생 동정녀이며 하느님의 모친, 또한 원죄에 물들지 않았으며 사망 후 승천했다는 것이다.

▨ 평생 동정녀인 마리아
루가복음과 마태오복음의 성서적 근거(루가 1, 34; 마태 1, 20~25)에 따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잉태를 정통 신앙으로 고백한다.(사도신경) 동정녀 잉태와 탄생은 그리스도로 인한 하느님의 구원 행위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아가 마리아는 평생 동정으로 지냈다는 전통이 에페소 공의회(431년) 때 공인됐으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553년 )때 신조 안에 '영원한 동정'이라는 표현으로 삽입됐다.

▨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오랜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문들은 한결같이 마리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선포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는 에페소 공의회(431년)에서 교의로 선포됐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었다. 이 교의는 그후 칼체돈공의회 등을 거쳐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재확인됐다. 이 칭호는 성자와 마리아의 밀접한 관계에서 연유된다. 마리아가 출산한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성부와 동일한 신성을 지닌 만큼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이다.

▨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죄를 범해 인간은 누구나 원죄의 멍에를 지고 있지만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마리아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되었다. 마리아 역시 여느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
지만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느님의 은총으로 무죄성의 특권을 지닌다. 마리아는 구세주의 모친으로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 마리아의 승천
마리아의 승천에 관한 교의는 아들 성자의 영광과 어머니의 현양,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표현한다.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는 '성모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고 8월 15일을 축일로 정하여 선포하였다. 세례받은 이들은 지금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상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 승천은 마리아가 모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예형이요, 모범으로서 죽음을 극복했음을 의미한다.

2. 마리아 공경과 신심 행위들
마리아를 공경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어머니인 거룩한 동정녀를 존경 하고 자녀다운 사랑을 드리며 성자께 전구(轉求)하여 주시기를 청하고 그 덕행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마리아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서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명심 해야 한다.
성모공경은 이미 2세기부터 시작돼 4~5세기경 동방교회에서 마리아 축일이 제정돼 전례적 공경이 시작됐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마리아 공경이 보급되고 권장됐다. 마리아 공경은 공적인 전례나 사적인 기도로 표현된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600가지 이상의 성모와 관련된 축일이 있다. 그중에는 세계 교회가 다함께 거행하는 것과 지역이나 일부 교구 수도단체에서만 거행하는 것들이 있으며 공식적인 교회의 신심은 주로 미사전례와 성무일도를 통해 표현된다. 교회는 또 성모 마리아와 관련해 전례적 공적 공경 외에도 성모께 대한 사적 공경과 신심행위를 승인해왔다. 흔히 마리아 신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기도로 알려져 있는 묵주 기도도 이에 속한다.

▨ 묵주 기도
전례축일(10월 7일)과 묵주의 달이 제정돼 있을 만큼 신자들에게 널리 퍼져있는 대표적인 성모신심 기도이다. 성 도미니꼬에 의해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묵주 기념일은 1571년 10월 7일 레판토 해전에서 묵주의 힘으로 터키를 무찌르고 승리한 것을 기념해 비오5세 교황이 제정했다. 묵주의 달 제정은 이 기도를 통해 신자들이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마리아께 합당한 신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회는 특히 루르드 파티마 등의 성모 발현에서 묵주 기도가 특별히 권장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

▨ 기적의 메달
1830년 성모님이 성녀 가타리나 라부레에게 친히 알려준 무염시태 성모 공경을 위한 메달이다. 1832년 교회 인가를 받아 보급되기 시작했고 빈센트회 사제들이 이보급에 힘썼다. 특히 1858년 루르드와 1932-1933년 보랭에서 발현한 성모마리아는 무염시태의 칭호 아래 공경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스카풀라(Scapular)
가르멜의 스카풀라는 기적의 메달과 함께 준성사이다. 이는 인정된 가르멜산 및 성모무염시태의 신심을 나타낸다. 원래 가르멜회 회원 수도복을 지칭했으나 현재는 두 개의 작은 옷조각과 끈으로 이뤄져 회원 휘장처럼 목에 거는 것으로 변형됐다.

▨ 성모 칠고(七苦)의 로사리오 성모칠고는
1. 시메온이 예언한 고통(루가 2, 34~35)
2. 이집트 피난
3.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잃음
4. 그리스도의 매맞음과 가시관 쓰심
5. 십자가에 못박히심
6.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
7. 무덤에 묻히심 등을 말한다. 이 신심은 각 슬픔을 묵상하면서 주님의기도
1번, 성모송 7번씩을 바치는 것이다.

▨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신심
20세기 들어 전 세계에 보급된 신심으로 1917년 파티마 발현이 큰 계기가 됐다. 1799년 비오 6세가 이 축일을 승인했고 1861년 비오 9세는 미사와 성무일도를 인정했다. 비오 12세는 1945년 이 축일 을 전교회 축일로 보편화시키는 한편 이에 앞서 1942년 인류를 성모성심께 봉헌했다. 이 신심은 파티마 성모신심, '푸른군대'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자료 출처 : 천주교용어사전

훈화43 한국교회와 성모신심에 대하여

한국교회에는 '해성(海星)'이라는 이름을 지닌 단체나 학교가 유난히 많다. 해성은 '바다의 별' 즉 성모 마리아 에게 특별한 보호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각별한 성모신심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국교회의 깊은 성모신심은 초기교회로부터 내려온다. 1801년 순교한 홍낙민은 배교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순교했는데 이는 그가 매일 묵주기도를 열렬히 바침으로써 성모의 도움을 얻어 가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는 성 김대건신부가 중국서 귀국할 당시 뱃길에서 풍랑을 만났으나 성모님 께 전구를 청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다고 적고 있다. 이 책은 김신부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선교사 들이 조각배를 타고 황해를 건널 때 성모님께 전구했으며 이로 인해 뱃길의 위험 뿐만 아니라 그후 박해의 위험도 여러 차례 모면했다고 전한다. 초기 한국교회에서 교우들은 매일 묵주기도를 5단씩 바쳤고 주일이면 15단씩 바치는 것이 일상화됐었다고 한다.

한국교회가 1841년 무염시태의 성모를 한국교회 새 주보로 모시게 된 것은 이러한 초기교회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제2대 조선교구장 앵베르 주교는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게 당시 주보로 모시던 성 요셉 대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로 정해줄 것을 요청, 1841년 이를 허락 받는다. 한국교회는 이에 대한 감사로 1846년 충남 공주 수리치골에 <성모성심회>를 창설했고 1861년 4대 조선교구장 베르뇌 주교는 선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을 성모에 관계된 호칭으로 명명해 한국교회 전 지역을 성모님 보호 아래 있도록 했다. 1898년 명동대성당은 무염시태 성모께 봉헌됐고 1954년에는 다시 한국교회가 성모 마리아께 봉헌됐다. 그후 30년이 흐른 1984년 한국을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5월 6일 명동대성당에서 한국 겨레와 교회를 성모 마리아께 봉헌 하였다.

▷자료 출처 : 천주교용어사전

훈화44 레지오의 기도문에 대하여 (교본 제22장：202-207면)

일반적으로 수도회에서는‘기도와 노동’(ora et labora)을 중요시 한다. 레지오 마리애 역시 수도회의 영향을 받아 활동(노동, 일)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중요시 한다. 기도의 중요성 때문에 레지오에는 기도 부대인 협조 단원 제도가 있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단원, 곧 쁘레또리움 단원과 아듀또리움 단원 제도를 두고 있다.
레지오의 기도문은 시작 기도, 까떼나, 마침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시작 기도는 성호경을 시작으로 성령께 드리는 호도에 이어 묵주기도와 ‘여왕이시며’(Salve Regina) 그리고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 호칭 기도, 레지오의 수호 성인 호칭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 까떼나는 후렴과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일명 기적의 메달 성모님)께 대한 화살 기도와 본기도로 엮어져 있다. 마침 기도는 성모님의 보호를 청하는 기도와 레지오의 수호자들에 대한 호칭 기도, 굳센 믿음을 간구하는 청원 기도, 사제의 강복과 성호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도는 개인 성화와 사도적 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단원들은 기도로써 필요한 은총을 받게 된다. 은총은 성령께서 주신다. 성령은 은총의 근원이다. 그래서 레지오는 우선적으로‘성령께 드리는 호소’로써 회합을 시작한다. 까떼나(Catena)는 사슬, 고리라는 뜻이다. 까떼나는 레지오와 단원, 단원과 단원, 단원과 성모님과의 연결 고리가 되는 일상 기도이다. 까떼나의 중심 부분은‘성모의 노래’(Magnificat)이다.‘성모의 노래’(루가 1,46-55)는 성무일도의 저녁 찬가로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의 노래이다.

마침 기도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믿음을 청하는 기도이다. 믿음은 종교의 핵심이며 기초이다. 믿음이란 절대자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하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강조하셨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레지오 창설자 프랭크 더프는 25세 때에 믿음에 대한 기이한 체험을 하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가르멜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보고 보속을 바치려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그의 신앙이 사라져 버렸다. 그 순간 하느님께서 존재하시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니 인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산산히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지옥과 같은 암담한 상태가 그에게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잠시 후 원래대로의 믿음이 되돌아 왔다. 비록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는 신앙의 어두운 밤을 체험했던 것이다. 그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 신앙이란 하느님의 은총과 선물이므로 그 누구도 이성만으로는 신앙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오로지 하느님께 자신을 의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레지오의 마침 기도문에 특별히 믿음을 청하는 기도문을 삽입했을 것이다.

믿음은 성모님의 특출한 덕성 중의 하나이다. 성모님은 친척 엘리사벳으로부터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루가1,45)라고 칭송 받으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성모 마리아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신자이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다.
따라서 모든 레지오 단원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 레지오의 기도를 바침으로써 은총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사목'지 레지오 훈화(최경용신부)에서 발췌

훈화45 레지오의 기도문은 변경하지 못한다(교본 제23장 : 208면).

레지오 회합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맺는다. 레지오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공인 받은 기도문을 사용한다. 이 기도문은 낱장의 인쇄물인 뗏세라에 수록되어 있으며 단원들은 이를 늘 지니고 다니면서 매일 바친다. 이 기도문은 창설자 프랭크 더프가 만든 것인데, 그가 세상을 떠난 1980년도에 이미 80여 개국 언어로 바쳐지고 있었다.

레지오의 시작 기도문은 빈첸시오회의 시작 기도문을 본뜬 것이다. 다만 묵주기도와 ‘여왕이시며’(Salve Regina)를 새로이 삽입하고 수호 성인들을 다시 대치하였다. 까떼나의 후렴인 “먼동이 트이듯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는 구약성서의 아가서 6장 10절을 인용한 것이고,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저 여인은 누구실까？”는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가 지은 ?거룩한 동정녀께 대한 참된 신심? 50항과 210항에서 발췌한 것이다. 마침 기도문은 믿음에 대한 청원 기도로서 역시 몽포르의 성인이 지은 같은 저서 214항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만든 것이다.

전세계 레지오 회합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기도문도 통일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 평의회의 결의가 없는 한 그 누구도 레지오의 기도문을 변경할 수 없다.
시작 기도에 있어서 묵주기도도 사도신경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묵주기도의 첫 부분인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세 번, 영광송을 바치지 않은 적이 있었으나 시정되었다. 그리고 ‘구원을 비는 기도’도 세계적인 통일을 위해 레지오 회합이나 행사에서는 바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기도문 중에서 수호 성인에 대한 호칭 기도 역시 국가나 지방의 성인 또는 어느 특정 성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만약 추가나 변경이 허용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라고 하게 될지도 모른다. 레지오의 모든 규칙을 만든 나라가 아일랜드이고 그 나라를 가톨릭 국가로 만든 공로자요 수호자로서 아일랜드 국민이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파트리치오(Patricio, Patrick) 성인조차 레지오 기도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레지오와 관련된 수호 성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일랜드와는 상관이 없는 프랑스 몽포르 출신 성 루도비코 마리아는 레지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므로 레지오 기도문에 삽입되어 있다. 특정 성인에 대한 호칭 기도 추가를 용인한다면 레지오 조직 체계가 흐트러진 수 있으므로 ‘레지오 기도문은 변경할 수 없다.’라는 규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1월부터 레지오의 기도문 중에서 ‘여왕이시며’(Salve Regina)와 ‘성모의 노래’(Magnificat) 문구가 바뀌었다. 이 두 가지를 성무일도와 가톨릭 기도서의 문구와 통일시키기 위해 번역을 다시 한 것이다. 영어 원문은 그대로이므로 기도문이 바뀐 것은 아니다.
교본 본문이 강조하듯이 레지오의 정신은 레지오의 기도문에 나타나 있다. 어느 나라말로 바치든 가장 정확하고 통일된 공통 기도문을 바치는 것은 레지오의 깃발 아래 모여 봉사하는 모든 단원들의 정신과 규율이 완전히 일치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결코 레지오의 기도문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사목'지 레지오 훈화(최경용신부)에서 발췌

훈화46 나자렛의 성가정에 대하여 (교본 제21장 : 197-201면)

가정은 사회의 기초 공동체이다. 가정이 튼튼하고 건전하면 사회도 튼튼하고 건전해 진다. 가정은 한 인간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보금자리이고 인간 성숙과 삶을 배우는 수련소이며 학교이다. 가정이라는 학교에서 인생 덕목의 기본을 배운다. 가정이 불행하면 인생도 불행하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행복하다. 그런 가정은 나자렛의 성가정을 옮겨 놓은 것과 같다. 1917년 10월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마지막으로 발현하셨을 때 성가정의 가족 모두가 함께 나타나신 것도 가정 성화의 중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셨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정이 새로이 이루어지는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 그분은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에서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과 함께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성가정을 이루셨다.

쁘레시디움도 레지오 조직에 있어서 가정과 같은 기초 공동체이며 성덕의 수련소이다. 기초 공동체인 쁘레시디움은 가정의 모델인 성가정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태 18,20)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럿이 함께 모인 쁘레시디움 회합은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자리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성모님과 성 요셉도 함께 계신다. 따라서 쁘레시디움 회합은 나자렛의 성가정과 같다.

레지오 단원들은 회합실뿐만 아니라 레지오 제대, 책상, 의자, 교본, 회의록 등의 회합 때 사용되는 기물들을 나자렛 성가정의 집과 가재 도구를 대하듯이 다루어야 한다. 단원들은 성모님이 옛적에 나자렛에서 하셨던 살림살이를 이제 쁘레시디움이라는 가정 안에서 재현하시도록 해야 한다.

성모님은 살림살이의 표본이셨다. 비록 가난하고 가재 도구도 변변치 못했겠지만 성모님은 살림살이를 잘하셨다. 성가정의 모든 물건은 예수님을 돌보기 위해 쓰여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쁘레시디움의 모든 것도 단원들을 잘 돌보는 데에 쓰여져야 한다.

살림살이는 물질이나 재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살림살이는 생활을 살리는 일인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나자렛의 성가정은 구원 사업의 요람이었으며 주님을 위한 터전이었다. 쁘레시디움은 살림살이의 표본인 성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나자렛 정신이다. 만일 쁘레시디움에서 듣고 보는 모든 것이 나자렛의 성가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쁘레시디움에는 나자렛 정신이 모자라는 것이다. 나자렛 정신이 부족하면 그 쁘레시디움은 시든 꽃과 같다.

쁘레시디움에 나자렛 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단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잘해야 한다. 쁘레시디움의 결점은 주로 간부들에게 원인이 있다. 단원들은 간부들로부터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빗나간다. 단원 양성소인 쁘레시디움 회합과 나자렛 성가정을 비교해보자. 성모님이 살림살이를 등한시하거나 예수님께 그릇된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쁘레시디움 간부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살림살이를 잘한다면 예수님께서 쁘레시디움에 기꺼이 현존하시어 간부들과 단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실 것이다.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사목'지 레지오 훈화(최경용신부)에서 발췌

훈화47 주회합 마침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교본178면)

회합을 마치기 전에 활동 배당 지시, 협조 단원 모집과 돌봄 확인, 교본 공부, 기타 사항이 있다.
활동 보고가 있으려면 반드시 활동 배당 지시가 있어야 한다. 단장은 주간 활동 계획서에 의거하여 당면한 활동을 둘씩 조를 이루어 수행하도록 배당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 활동도 병행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다.
활동 배당에는 단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 단장이 활동 거리를 미리 확보하지도 않고 활동 배당도 없이 단원들로 하여금 자유 활동을 하도록 방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활동은 레지오 회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단장은 활동 배당과 지시에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활동 여하에 따라 레지오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단장은 회합 전에 미리 활동 거리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단장은 활동 거리를 혼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영적 지도자나 단원들에게서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본당 사무실에서 활동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며 구역, 반공동체 모임, 본당의 여러 단체로부터도 활동 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 배당이 빈약하면 조직체가 쇠퇴될 수 있음을 단장은 명심해야 한다. 매번 같은 내용의 활동만 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원들은 배당받은 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배당받은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주간에 이행해야 한다. 단장은 단원이 배당받은 활동을 완수할 때까지 같은 활동을 배당해 주어야 할 것이다.
레지오의 활동 종목은 크게 입교 권면, 예비신자 돌봄, 교우 돌봄, 어려움을 겪는 분 돌봄, 레지오 확장, 본당 협조 등이다. 활동 종목을 세분하여 열거하자면 활동 거리가 상당히 많아진다. 세분된 활동 거리는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의 활동 세목에 잘 나타나 있다.
수련기에 있는 예비 단원도 활동 배당 지시를 받는다. 단장은 '도제 제도' 에 따라 수련 단원이 고참 단원과 함께 활동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협조 단원 모집과 돌봄은 레지오 단원의 의무이므로 주회에서 단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부단장은 확인 결과를 출석부의 협조 단원 해당란에 기입하며 이때 아듀또리움 단원 모집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협조 단원에 있어서 모집도 중요하지만 돌봄도 중요하므로 가끔 자신이 돌보는 협조 단원과 함께 레지오 기도를 바쳐야 한다
교본 공부는 관례상 협조 단원 모집과 돌봄을 확인한 다음에 실시한다. 교본 공부는 레지오 단원의 의무이다. 단원들은 레지오의 교과서인 교본을 공부함으로써 자질을 향상하고 정신을 무장하며 레지오의 원리와 규칙을 폭넓게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교본 공부 시간에 성서 공부나 다른 공부를 할 수 없다.
교본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단장이 지정해 준 교본의 한 부분을 지명 받은 한 사람만 공부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단원 모두가 공부해 와야 하며 지명된 단원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 응답 등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교본 공부가 끝나면 기타 사항 시간을 두어 쁘레시디움과 관련된 사항을 공지하거나 의논한다. 이때 상급 평의회 방문자가 있으면 방문 소감을 듣는다.
회합을 마칠 때에는 모두 일어나서 뗏세라의 마침 기도를 바친 후 영적 지도자의 강복을 받는다. 영적 지도자가 불참했으면 다같이 성호를 긋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레지오 단가는 촛불을 끈 상태에서 부른다. 회합이 완전히 끝나면 제대 비품과 서류를 정리하고 회합실을 깨끗이 정돈한다.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총 진행 시간은 한 시간 미만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한 시간 반이 넘어서도 안 됨을 단장은 유의해야 한다.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사목'지 레지오 훈화(최경용신부)에서 발췌

훈화48 뗏세라와 레지오의 단기에 대하여 (교본 제26, 27장：229-231면)

레지오 단원이면 누구나 뗏세라를 지니고 다녀야 한다. 뗏세라(Tessera)는 출입증, 승차권, 입회증, 회원증, 신분증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군사 용어로는 고대 로마 군대에서 암호를 적어 돌렸던 네모난 표찰을 가리켰다. 로마 제국 시대에 흩어져 살고 있던 군인과 그 가족 또는 귀족 사회의 친구와 그 가족들이 서로 만나거나 거주지를 방문할 때 뗏세라를 보여 줌으로써 출입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작전 지역에서 야간에 암호를 알고 있어야 통행과 출입이 허용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레지오 마리애의 뗏세라는 레지오의 기도문과 그림이 실린 리플릿(leaflet)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뗏세라의 규격은 가로 11.5cm, 세로 17.5cm이고 분량은 12쪽이다. 뗏세라가 지닌 특성은 레지오의 기도문과 그림 외에도 세계의 모든 레지오 조직에서 두루 통용된다는 점과 단원들 사이의 소속감, 친밀감, 형제애, 일치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협조 단원들은 매일 뗏세라의 모든 기도를 드려야 하며 행동 단원들은 뗏세라에 들어 있는 까떼나를 매일 바쳐야 한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뗏세라를 마치 신분증처럼 여겨 늘 가지고 다니면서 레지오의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대 로마 군단에서는 군기(軍旗)를 라틴어로 벡실룸(Vexillum)이라고 불렀다. 벡실룸을 벡실리움(Vexilium)으로 기록하거나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다.
무릇 어느 국가든지 그 나라의 표지(標識)가 되는 국기가 있듯이 군대에도 군기가 있기 마련이다. 군기는 군대의 정신적인 상징이므로 기수가 늘 앞장서서 들고 간다. 전쟁에서 비록 기수는 쓰러지더라도 군기는 수호되어야 한다. 군기를 적에게 빼앗기는 것은 패배를 의미한다.
레지오 마리애에서는 벡실룸을 단기(團旗)라고 부른다. 단기는 매우 중요하므로 회합에서 레지오 선서를 할 때나 아치에스 행사를 할 때에 반드시 레지오 단기의 깃대를 손으로 잡도록 한다. 레지오의 단기는 로마 군단의 군기를 본뜬 것이다. 그 군기는 독수리 형상 아래에 황제의 초상이 들어 있었다. 레지오는 그 군기를 그리스도교적으로 변형시켜 독수리는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로 만들었다. 비둘기 아래에는 'Legio Mariae'(레지오 마리애)라는 표장이 있다. 이 표장과 깃대 사이에는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나타내는 타원형 패(기적의 패)가 자리잡고 있으며, 장미와 백합이 그 사이에 장식되어 있다. 깃대는 지구본 위에 세워져 있고 지구본 아래쪽은 네모진 받침대가 받쳐 주므로 벡실룸을 탁자 위에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다. 단기의 전체적인 구도는 성령께서 성모 마리아와 레지오 단원들을 통해 활동하심으로써 지구의 모든 인류를 차지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레지오의 단기는 회합에서 사용하는 탁자용(높이 약 32cm)과 행렬이나 아치에스 행사 때 사용되는 대형 거동용(높이 약 2m)으로 구분된다.
쁘레시디움과 각 평의회에도 고유한 기가 있는데 레지오의 단기와는 달리 천으로 만든 깃발 형태이다. 쁘레시디움기나 꾸리아기를 레지오 단기라고 부르지는 않으며 보통 붉은색이나 푸른색으로 만드는데 맨 위에는 레지오 마리애라고 새기고 그 아래에는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명칭을 기입하고 맨 아래에는 교구와 성당 이름을 명시한다. 뗏세라에 있는 그림을 보면 무수히 많은 레지오 단원들 맨 앞 오른쪽에는 기수가 비둘기 모형의 벡실룸을 들고 있고 왼쪽에는 푸른 천 바탕의 방패형 깃발에 라틴어로 레지오 마리애라고 새겨진 깃대를 들고 있다.
레지오의 단기는 레지오 마리애를 표상하므로 레지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제반 양식에는 반드시 벡실룸의 표장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레지오의 단기와 각 쁘레시디움기나 평의회기를 늘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사목'지 레지오 훈화(최경용신부)에서 발췌

훈화49 레지오 단원의 충성에 대하여 (교본 제29장：257-259면)

군복무를 마친 지 몇십 년이 흘러도 남자들이 술자리에 모이면 군대 생활 얘기를 종종 한다. 희로애락의 체험이 생생하고 강렬하기 때문일 것이다. 군대에서는 충성심이 필수적인 군인 정신이다. 흔히 경례 구호도 '충성'이다. 국가와 상관에게 복종으로 충성하겠다는 뜻이다. 충성은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행동이 따라야 한다. 말로만 충성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무력한 군대가 된다. 그리하여 탈영, 하극상, 총기 탈취 등의 불상사가 생긴다.

고대 로마 군단은 투철한 군인 정신을 지녀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지휘관에 대한 충성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었고 지휘관의 작전 지시에 따라 기꺼이 목숨을 바쳐 무적의 군대가 되었다. 이 군단을 본뜬 레지오 마리애는 성모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신 영적 군대로서 충성을 중요시한다. 평의회의 으뜸가는 의무도 직속 상급 평의회에 대한 충성이다. 충성은 레지오 전체를 결합시키는 접착제이며 생명선이다. 레지오에서 충성이란 쁘레시디움에 대한 단원들의 충성, 꾸리아에 대한 쁘레시디움의 충성을 비롯하여 세계 중앙 평의회에 이르는 모든 상급 기관에 대한 충성을 말하며 또한 영적 지도자, 교구장, 교황 등 교권(敎權)에 대한 충성을 말한다. 프랭크 더프는 그 당시 성직자들이 하던 영적인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반성직주의자, 반교권주의자라는 비난과 오해를 받았지만 교회 권위에 끝까지 복종과 충성을 보였다. 그리하여 레지오 창설 50주년에는 아일랜드 주교단으로부터 레지오가 한결같이 보여 준 복종과 충성에 대한 찬사의 편지를 받았다.

레지오에서 충성을 강조하는 근거는 성모 마리아의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충성이다. 성모님께서는 동정녀로서 구세주 잉태 예고를 듣고 죽음을 무릅쓰고 순명하셨고 일생동안 하느님께 충성하셨다.

레지오 단원들은 입단 선서식을 할 때 레지오 규율에 온전히 복종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근래엔 그 약속을 자주 어김으로써 기강이 해이해져 힘없는 군대가 되고 있다. 특히 단장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진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단장에게 충성하는 것은 단장이 단원보다 레지오에 대해 더 잘 알거나 인격 면이나 능력 면에서 단원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비록 단장의 통솔력이 부족하고 결함이 있을지라도 단장에게 순명하는 것은 레지오와 교회에 순명하는 것이다. 단원들은 조직의 정당한 권위에 대해 겸손하게 순명해야 한다. 순명은 충성의 열매이다. 쁘레시디움 주회에서나 평의회에서 단장에게 지시 받은 일을 성모님께서 지시하신 일로 여기고 순명하는 것이 바로 레지오 마리애에 대한 충성이다. 주님께서 단원들을 도구로 쓰시려 하시는데도 불순명하고 결석이 잦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레지오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것이다. 배당 받은 활동을 못했을 때에는 단장은 그 이유를 물어 단원으로부터 충성심과 순명 정신을 확인받아야 할 것이다.

단원뿐 아니라 간부들도 조직의 결속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간부들이 회합 참석을 소홀히 하거나 통신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회합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충성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다. 모든 레지오 단원은 단장과 관리 기관,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대해 순명과 복종으로 충성함으로써 고대 로마 군단처럼 성모님의 강력한 군단을 이루어야 하겠다.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사목'지 레지오 훈화(최경용신부)에서 발췌

훈화50 레지오의 수호성인중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교본：211- 212면)

레지오의 영성과 성모 신심은 프랑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가 저술한 [거룩한 동정녀께 대한 참된 신심]이란 책에서 유래한다. 이 성인은 이 책에서 레지오 마리애가 출현할 것을 예언하였다(114항 참조).
이 성인의 이름을 레지오의 시작 기도문에 삽입하기로 한 다음과 같은 결의문으로써 이 성인은 레지오의 특별 수호 성인이 되었다. "어떤 특정 성인이나 지역의 수호자를 레지오의 수호 성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몽포르의 복자 그리뇽을 포함시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레지오 발전에 이분만큼 큰 역할을 한 성인이 없다. 레지오 마리애 교본은 이분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고 레지오의 기도문은 바로 이분이 하신 말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분은 사실상 레지오의 스승이므로 레지오가 이 성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거의 도의적으로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면 이 성인의 생애를 알아보자.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St. Louis Marie Grignion)은 1673년 1월 31일 프랑스 렌느 교구의 몽포르(Montfort)라는 시골에서 태어났다. 그는 18명의 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으나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죽었기 때문에 맏아들 노릇을 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모상 앞에서 자주 기도하여 성모 신심이 각별해진 것인지 견진성사 때 세례명인 루도비코에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덧붙였다.
그는 어느 날 가르멜 성당의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던 중에 사제직에 대한 소명을 깨달았다. 20세 되던 1693년에 사제가 되기 위해 파리로 갔다. 2년 간 고생 끝에 성 슐피스 수도회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700년 6월 5일에 성품성사를 받아 수사 신부가 되었다. 당시 그는 캐나다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싶어했으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시립 병원의 원목이 되었다. 도시 빈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 마리 루이즈 뜨리세라는 동정녀와 함께 '지혜의 딸들' 수녀회를 창립하였다.
성모 신심을 권장하는 그의 활동이 얀세니스트(Jansenist)들의 방해를 받았다. 얀세니즘은 교회 안에서 엄격주의를 표방하고 특히 성모 신심을 거부하였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들의 방해를 받아 사면초가에 직면하였다. 1706년 봄에 그는 걸어서 로마까지 가서 교황 클레멘스 11세를 알현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교황의 지시에 따라 그는 프랑스 서부 지역의 선교사가 되어 하느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가르쳤다.
그는 무려 2만 5천㎞를 걸어 다니면서 7개의 교구를 재복음화시켰고 100개 이상의 본당을 변화시켰다. 그는 십자가의 길 14처를 곳곳에 세우고 성모 경당을 복구하고 묵주기도를 권장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교리를 강조하였다. 또한 신자들로 하여금 세례 때의 서약을 갱신하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완전히 봉헌하는 생활을 하도록 가르쳤다. 그는 '마리아 선교 수도회'도 창설하고 훌륭한 저서들도 남겼다.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영위한 그는 1716년 4월 28일 생 로랑에서 선종하였고 그곳 슈르 쎄브르 성당의 성모 경당에 묻혔다.
레지오 단원들은 이 성인의 훌륭한 생애와 영성을 본받고 이 성인이 가르쳐준 참되고 완전한 성모 신심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성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짓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성 루도비코 마리아의 축일은 4월 28일이다.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사목'지 레지오 훈화(최경용신부)에서 발췌

훈화51 레지오 확장과 단원 모집(교본 제31장：270-275면)

어느 단체든지 회원 숫자가 늘어난다면 발전하는 것이다. 레지오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원 모집과 쁘레시디움 증설에 정성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성은 성모님께 대한 충성의 표시이다. 쁘레시디움 설립과 단원 모집은 평의회와 평의원의 의무 사항일 뿐만 아니라 행동 단원의 활동 의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오늘날 레지오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으며 단원 숫자나 평의회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추세에 있다.
레지오가 단원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생활을 몸소 보여 주어야 한다. 마지못해 단원 생활을 하거나 서로 간부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누가 레지오에 입단하려고 하겠으며 레지오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레지오 단원이 됨으로써 좋은 점이 많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면 레지오를 자신 있게 홍보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레지오 단원이 되면 과연 어떤 혜택이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태 16,26)라고 하셨고,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라고 하셨으며,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하셨다. 이 말씀에 따라 레지오 단원은 개인 성화를 통해 자신도 구원 받고 선교와 봉사 활동을 통해 타인도 구원 받게 함으로써 참으로 보람 있는 생애를 보낸다. 일단 레지오에 가입하면 이기심 없는 자원 봉사자가 되어 고통 받고 도움이 필요한 활동 대상자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용기를 주게 된다. 그리고 선교 활동으로 한 명이라도 영세시키면 활동 대상자에게는 영신 생명의 은인이 된다.
레지오 단원이 되면 주회합의 3대 요소인 기도, 공부, 활동을 통해 굳건하고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투철한 군인 정신과 프로 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세속 정신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의 삶, 구원된 삶을 살게 된다. 또한 레지오 단원이 되면 성모 신심이 깊어져 성모님의 덕을 본받아 인격이 도야된다. 그리고 성령 신심을 통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된다.
레지오 단원이 되면 본당 사목자의 수족(手足) 역할을 하게 되며 열심히 활동하면 할수록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레지오 단원 생활을 오래 한다면 선종하는 은혜를 입게 되고 레지오 장례식과 위령 미사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매년 위령 성월에 어김없이 위령 미사로써 죽은 레지오 단원들을 기억해 준다. 이 모든 것이 레지오 단원들에게 주어지는 특전이며 은혜이다.
쁘레시디움의 이상적인 단원 숫자는 예수님께서 선발하신 사도들의 숫자처럼 열두 명이다. 단원 수가 너무 많아 회합 소요 시간이 계속 한 시간 반을 넘긴다면 분단해야 한다. 분단할 때는 기존 쁘레시디움으로부터 간부나 신입 단원을 적정한 비율로 신생 쁘레시디움에 전속시킴으로써 둘 다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쁘레시디움은 훌륭한 인재를 신생 쁘레시디움에 보내는 것을 영예로 여겨야 한다. 분단할 때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일지라도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
레지오 확장에는 소년 쁘레시디움과 소년 평의회 설립도 해당된다. 각 쁘레시디움과 평의회는 소년 쁘레시디움 운영을 조직 체계의 일부로 여겨야 한다.
레지오 확장을 위해서는 각 쁘레시디움이 일 년에 한두 명 정도는 입단시키고 평의회마다 일 년에 한 개 정도의 쁘레시디움을 신설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레지오는 발전하게 될 것이다.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사목'지 레지오 훈화(최경용신부)에서 발췌

훈화52 단원들 사이의 유대관계에 대하여(교본 294-299면)

레지오 단원이면 누구나 간부들과 동료 단원들을 사랑해야 하고 함께 활동하는 단원들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단장이 마음에 안 든다느니 어느 단원이 보기 싫다느니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단원들은 동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사랑을 표현하지만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동료의 허물까지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단원은 자신이 단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장이나 동료 단원들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인정, 무시, 비난,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이 단원 생활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자제력과 함께 자신의 개성을 매끈하게 다듬어 레지오 조직에 잘 적응하는 단원이야말로 유대 관계를 잘 맺는 단원이다.

공자는 '남이 나를 알아 주지 않아도 섭섭해 하지 않는 것이 군자되는 기본 조건'이라고 했고, 노자는 '모든 것에 이로움만 줄 뿐 그것과 겨루거나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참된 사람이란 자신을 내어 주는 것이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위한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기 중심의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육지에 사는 생쥐가 물에 사는 개구리를 초대하여 맛있는 육식을 대접하였다. 개구리도 그 보답으로 생쥐를 초대하였다. 헤엄칠 줄 모른다는 생쥐에게 "괜찮아. 내가 이 질긴 풀로 네 발목을 내 발목에 잡아매고 업어 줄테니까."라고 말하면서 안심시켰다. 그런데 개구리는 신이 나서 등에 업혀있는 생쥐 생각을 깜박 잊어 버리고 물 속으로 한참 들어가 있는 바람에 생쥐가 숨이 막혀 죽어서 물에 둥둥 떴다. 때마침 공중을 빙빙 돌던 매가 생쥐를 보고 잽싸게 낚아채자 생쥐의 발목에 매여 있던 개구리도 함께 공중으로 끌려갔다. "아, 잠깐만, 나를 놓아 주세요. 당신이 낚아 챈 것은 물위에 떠 있던 생쥐가 아닙니까?" 그러나 매는 "흥, 죽은 생쥐보다야 살아 있는 네가 훨씬 더 맛있겠다." 하더란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상대방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인 것이다. 단원들이 레지오에 소속되어 있는 한 마치 개구리와 생쥐의 발목을 서로 잡아 맨 끈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단원들 간의 유대 관계가 단원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훈 제3항에서 단원들은 "활동 대상자와 동료 단원들 안에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금 뵙고 섬기시듯이 하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단장을 비롯한 간부들이나 동료 단원들 특히 함께 활동에 나선 단원을 또 하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여 사랑해야 한다.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사목'지 레지오 훈화(최경용신부)에서 발췌

훈화53 교본공부와 항상 복무하는 자세에 대하여 (교본 299-306면)

모든 단원은 레지오 마리애의 공인 교본(The official Handbook of the Legion of Mary)을 공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본은 레지오의 공식 해설서이고 단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과서이다. 이 교본은 단원들이 성모님의 군사로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중요 사항들 곧 레지오 조직의 원리와 규칙, 운영과 활동 방법, 레지오의 정신 등에 관해서 가능한 한 간결하게 설명한 규범집이다. 교본에 제시되어 있는 정신과 사상은 적극적인 레지오 활동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교본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레지오 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 특히 영적 지도자나 간부들의 경우에 교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레지오 조직을 제대로 지도하고 운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반면에 교본을 많이 알면 알수록 능률적으로 레지오를 운영하게 되고 질적 수준도 높아진다.
교본 공부의 중요성 때문에 수련기의 예비 단원들은 의무적인 학습 활동으로서 교본 전체를 읽어야 한다. 그리고 주회합 순서에도 교본 공부 시간을 별도로 두고 있다. 교본 공부 시간에 교본을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내 버린다면 그것은 어디까지 영적 독서에 지나지 않으며 레지오가 바라는 수준의 교본 지식을 쌓지는 못한다. 교본 공부 시간에는 교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질의 응답도 곁들이는 것이 좋다. 가끔 보면 교본 공부를 배당 받은 단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부담스런 마음이 생겨 결석하는 한심스런 일도 생긴다. 교본 공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학습 활동이다. 영적 지도자나 단장은 단원들이 교본에 담겨 있는 뜻과 사상을 익혀 차츰 수준을 높여 갈 수 있도록 매주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공부시켜야 하며 단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교본 공부를 해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일상 생활의 모든 면에 레지오 정신이 깃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레지오의 전반적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늘 주위를 살피며 항상 복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고 활동 대상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단원이 복무 자세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규율을 지키는 것과 차별 없는 사랑이다. 옷차림, 말씨, 태도, 행동 등이 남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록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누구에게나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봉사 정신이 담긴 의지적인 사랑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루가 10,25-37)의 비유를 통해 항상 차별 없는 사랑으로 복무할 것을 가르치신다. 예수님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한 마디로 간단히 대답하지 않으시고, 강도 만난 사람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드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셨다. '내 이웃이 누구냐' 보다도 '누가 내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사랑에는 추상적인 이론보다도 실제적인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행동하는 사랑을 강조하셨다.
레지오 단원도 일상 생활에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늘 차별 없는 사랑으로 복무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비록 주회합에서 배당 받지 않은 활동이라도 일상 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견한 선행, 봉사, 선교 대상자에게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사목'지 레지오 훈화(최경용신부)에서 발췌

훈화54 기도를 바쳐야 할 의무와 내적 생활을 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교본 제33장12-13항：306-312면)

레지오는 행동 단원들이 매일 까떼나만 의무적으로 바칠 것이 아니라 뗏세라에 있는 모든 기도를 바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그리고 단원들에게 외적인 활동뿐 아니라 내적인 생활도 의무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레지오의 첫 번째 목적은 단원들의 개인 성화이다. 단원들이 구원 문제에 서 개인 성화는 아랑곳없이 활동에만 신경 쓴다면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모름지기 단원들은 활동과 더불어 기도와 내적 생활을 통해 개인 성화에 힘써야 한다. 개인 성화는 자신의 노력과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방법은 기도와 성사이다. 개인 성화의 지름길은 기도와 보속과 성사로써 이루어지는 내적 생활이다.
내적 생활이란 각자의 생각이나 욕구 또는 애착 등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는 생활을 의미한다. 내적 생활의 모형이며 개인 성화의 표본은 복되신 동정 성모님이다. 성모님은 성덕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특히 그분의 애덕은 전 생애에서 더욱 크게 자라났다.
단원들은 개인 성화에서 성모님뿐만 아니라 레지오의 창설자 프랭크 더프의 열성도 본받아야 한다. 그는 성인전을 즐겨 읽고 성인이 되고 싶은 나머지 이미 27세의 젊은 나이에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는가?」(Can we be saints?)라는 소책자를 출판하였고 봉사 활동과 더불어 개인 성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개인 성화가 중요한 것임을 안다면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에게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된 것은 영적 독서와 봉쇄 피정이었다. 봉쇄 피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되자 해마다 두 차례씩 스스로 피정을 실시하였다. 그는 단원이면 누구나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2박 3일의 주말 봉쇄 피정을 할 것을 강조했고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1박 2일이나 당일 피정이라도 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수도회 신부를 영적 지도자로 삼아 자주 고해성사를 보고 영적 지도를 받았다. 그는 25세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영성체했다. 그는 활동을 하면서도 점점 더 많은 시간 기도하였고 특히 감실 앞에서의 성체 조배에 전념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공동 기도인 성무일도를 날마다 바쳤다. 그는 성무일도를 하느님과의 순수한 친교로 보았다.

그는 또한 금욕과 극기를 중요시하여 폐허가 된 옛 수도원에 해마다 가서 참회와 보속의 고행을 하였다. 금욕과 극기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는 행위이며 그분의 삶을 좀 더 온전히 나누어 가짐을 의미한다. 자신을 단련함은 죄악으로 기울게 하는 경향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훌륭한 방법이다.
프랭크 더프는 개인 성화와 내적 생활에서 미사 참례와 영성체, 성무일도, 묵주기도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들을 매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두 등급의 단원 제도를 두었다. 그리하여 단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활동에서 기도에 의존하는 정신을 갖도록 만들었다.
레지오에서는 창설자 프랭크 더프가 훌륭한 내적 생활로써 개인 성화를 이루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복자품에 오를 수 있도록 시복 청원 기도문을 만들어 단원들에게 기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성모님과 프랭크 더프를 본받아 기도와 내적 생활로써 개인 성화에 정진해야 한다.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사목'지 레지오 훈화(최경용신부)에서 발췌

훈화55 쁘레시디움 단장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교본 321-325면)

레지오 마리애는 성직자 단체가 아니라 평신도 단체이다. 쁘레시디움에서 아무리 영적 지도자의 역할과 영향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단장이 잘못하면 쁘레시디움 전체가 잘못된다. 영적 지도자는 어디까지나 지도자이기 때문에 단장의 일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단장은 영적 지도자가 불참할 때 영적 독서, 까떼나 낭송, 훈화 등 영적 지도자의 일까지 맡아서 해야 한다. 단장은 쁘레시디움의 대표로서 단원들을 통솔하고 쁘레시디움을 관리,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쁘레시디움의 운명, 발전과 성패는 단장에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장은 추진력, 통솔력,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 생활에서나 사도직 활동 수행에서 단원들에게 표양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예컨대 단장이 주회에 자주 결석하거나 활동 계획서도 준비하지 않아 활동 배당을 해 주지 않고 단장 자신이 활동 이행에 소홀하고 언행도 일치하지 않으면서 단원들 위에 군림하려 하고 열성도 없이 타성에 젖어 있다면 단원들이 하나 둘 이탈하여 얼마 못가서 그 쁘레시디움은 존폐 위기를 맞게 된다. 이처럼 단장의 결함은 단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움직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마련이므로 그럴 경우 단장은 사임하여 물갈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반면에 해체될 위기에 있던 쁘레시디움이 훌륭한 단장을 맞이함으로써 쁘레시디움이 활성화되고 단원 수가 많이 불어나 새로운 쁘레시디움을 분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단장은 단장 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주간 활동 배당과 활동 보고를 제대로 받고 나자렛의 성가정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주회를 원만하게 진행한다. 그는 겸손하여 자신의 감정에 좌우되거나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며 단원들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그는 단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단원들에게 나눔과 베풂을 실천한다. 그는 성모 신심이 깊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매사에 솔선수범하며 교회 권위에 순종한다. 그리고 다른 간부들이 각자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돌본다. 이러한 단장이 있는 한 그 쁘레시디움은 활기차게 마련이고 발전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요즘은 단장직이 부담스러워 서로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냥 평단원으로서 부담없이 레지오 단원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레지오에 대해 잘 모르는 신참 단원이 단장직을 마지못해 떠맡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모름지기 단장은 성모님이 직접 자신에게 중책을 맡겼다고 여겨 기꺼이 레지오에 봉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단장직에 필요한 은총을 충분히 받게 될 것이며 1차 임기 3년만이 아니라 2차 임기 6년까지도 무난히 채우게 될 것이다.

쁘레시디움 단장은 성모님 군대의 최전방 소대장과 같다. 전쟁터에서 소대장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소대원들을 이끌고 최일선에서 용감하게 싸우듯이 쁘레시디움 단장이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단원들이 단장을 우러러보고 순명 정신으로 열심히 단장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사목'지 레지오 훈화(최경용신부)에서 발췌

훈화 56 " 5-3=2 와 2+2=4"

(아래 부분에 본당 성모의 밤 행사 관련 글이 있습니다)

5-3=2 와 2+2=4
이것은 이해와 사랑에 관한 공식입니다.
5-3=2 즉, 어떤 오해라도 세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2+2=4 이런 이해와 이해가 모여서 사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해도 받고 오해도 하지만 대개 오해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때문이고
하잖고 사소한 일이 원인이 될때가 많지요
세번 생각하면 살인도 면한다고 합니다.

루가복음 2장에 성모님께서도 가브리엘 천사의 "은총이 가득히 받은 마리아, 기뻐하여라"
라는 말에 당황하였고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곰곰히 생각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5월 성모 성월에 성모님의 성급하지 않은 마음, 곰곰히 생각하며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닮고자 노력하면서, 혹시라도 "오해"라는 엉킨 실타래가 생겼다면
이 5-3=2, 2+2=4 이해와 사랑의 공식으로 서로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5.15) 오후 8시에 성모님의 밤이 있지요.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성당 앞 마당에 모여 성모상을 가마에 모시고 행렬하면서 각자의 손에 밝혀진 촛불에
우리의 원의와 소망을 담아 성전에 봉헌할 것입니다. 봉헌하는 초에 우리 가족의 안녕도
빌어야 겠고, 더불어 세상에 일어나는 마음 아픈 일들, 특히 이라크 전쟁이후의 여러
좋지 않은 상황들, 일본이 독도 문제로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 이북 용천의 사고 등등의
일들도 성모님께 도움 청하며 기도로 봉헌했으면 합니다.

2004.5 김 헬만 수녀